

## 제8장 주산면(珠山面)

본래 남포군 습의면(習衣面) 지역으로서 습의면(習衣面)이라 하여 심동(深洞), 농암(籠岩), 회룡(回龍), 상야(上野), 하야(下野), 구산(九山), 신촌(新村), 유곡(柳谷), 수곡(壽谷), 내증(內甌), 외증(外甌), 벽동(碧洞)의 12개 동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벽동(碧洞)을 웅천면에 넘겨주고 불은면(佛恩面)의 동막(東幕), 내동(內洞), 오상(五常), 동곡(東谷), 천곡(泉谷), 정곡(井谷), 월현(月峴), 화산(花山), 평촌(坪村), 옥상(玉上), 창촌(倉村), 연암(燕岩), 황성(篁城), 울동(栗洞), 금당(金塘), 주산(珠山)의 16개 동리와 심전면(深田面)의 평장리(平章里) 일부를 병합하여 주렴산(珠簾山)의 이름을 따서 주산면(珠山面)이라 하여 보령군에 편입되고 동오(東五), 삼곡(三谷), 화평(花坪), 창암(倉岩), 황률(篁栗), 금암(金岩), 야룡(野龍), 주야(珠野), 신구(新九), 유곡(柳谷), 증산(甌山)의 11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 불은면(佛恩面) : 옛 남포현 남쪽에 있던 면. 현재 주산면 창암리, 동오리, 화평리, 삼곡리, 황률리 지역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 습의면(習衣面) : 옛 남포현 남쪽의 면. 현재 주산면 금암리, 야룡리, 주야리, 증산리, 유곡리, 신구리 지역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 1. 금암리(金岩里)

남포군 습의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심동(深洞), 농암리(籠岩里), 회룡리(回龍里) 일부와 불은면의 금당리(金塘里)를 병합하여 금당(金塘)과 농암(籠岩)의 이름을 따서 금암리라 하여 보령군 주산면에 편입하였다.

주산면의 중심지이다. 근래 면사무소를 넷물 건너 야룡리 구역으로 이전하였다.

- 가는골 : 주산역 동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안에 6·25 사변 때 철도경찰대와 전투 중 사망한 인민군(6사단)의 무덤이 있다. 1951년 7월 인민군이 금당이 앞 철로에 매복하여 있다가 주산 지서에 들어온 철도경찰대를 공격,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듬해 봄에 보니 이곳에 인민군 시체 2구를 엉성하게 묻은 것이 발견되어 마을 사람들이

문었다고 전한다.

- 간재 : 주산면 소재지이다. 면사무소는 우체국 옆에 있다가 1971년에 초등학교 앞으로, 1992년 야룡리 지역인 현 위치로 옮겼다.
- 간재장 : 금암리에 서는 5일 정기 시장. 1·6일에 선다. 근래 쇠퇴하였다.
- 간재재 : 신지굴에서 미산면 남심리로 넘어가는 고개. 미산 삼계 5동 학생들이 주산 중·고등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주산 주민들이 남심리를 지나 판교장을 다니던 고개이다. 옛날 판교장의 쇠전이 유명하여 소장수들이 애용하던 길이다. 소장수들이 돈을 빼앗기기도 했고, 차일귀신이 자주 나타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넘기 무서웠던 고개이다. 고개를 낮추고 2차선으로 확·포장하였다.
- 간재재굴 : 간재재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100여 m 높이까지 논으로 개간되었다.
- 간치(良峙) : 1960년대 금암리 2구(良峙, 籠岩) 중 1구.
- 간치(良峙) : 간재의 한자 표기. 간치역 근처를 말하기도 함.
- 간치시(良峙市, 간지장) : 금암리 현 주산면 소재지 <1911, 朝鮮地誌資料>
- 간치천 : 통점에서부터 장터를 지나 웅천으로 통하는 내.
- 간치현(良峙峴) : 간재재 <1911, 朝鮮地誌資料>
- 개덕굴 : 절굴저수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 공판재의 밑이며 절굴의 서쪽이다.
- 개매 : 두집매와 안태 마을 서쪽 산기슭을 통칭하는 말.
- 골막굴 : 통점골의 동쪽 끝에 있는 골짜기. 지장골의 북쪽에 있다.
- 공골다리 : 장항선 철로 밑을 통과하여 아래통점으로 들어오는 교통로. 시멘트로 된 다리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공동묘지 : 주산역과 금뎡이 위뜸 사이에 있다.
- 공판재 : 절굴저수지 북쪽의 개덕굴과 황률리 쇠꼬지 마을 사이에 있는 평평한 산능선. 옛날 나무꾼들이 공을 치던 곳이라고 전한다.
- 구렁목 : 청석다리 마을 동북쪽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 몇 가구가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다.
- 구렁목저수지 : 구렁목 안에 있는 절굴저수지를 밖에서 부르는 이름.
- 구렁이굴 : 절굴저수지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두루굴의 동쪽에 있다.
- 구름바위 : 용주암 뒤 정상 부분에 있는 바위. 운암(雲岩)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황률리 등 멀리 떨어진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행여바위(상여바위)라고 부르는데 석양 햇빛에 반사되어 상여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만장처럼 보인다고 한다.
- 국수뎡이 : 쾌랭이봉의 다른 이름.

- 금당리(金塘里) : 금댕이 마을의 한자 표기.
- 금댕이 : 금암리 북쪽에 있는 마을. 황룡리와 경계를 이룬다. 위뜸과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 금암1리 : 1반 금당, 2반 시내.
- 금암2리 : 1반 안터, 2반 심계골, 3반 심곡.
- 금암3리 : 1반 위뜸, 2반 아래뜸, 3반 뒷골.
- 금암4리 : 1반 청석다리, 2반 구렁목.
- 금암리고인돌 : 두집매 마을과 안태 마을 사이에 있다. 통점으로 통하는 도로의 서쪽 발 가운데 10여 기가 산재되어 있었는데 일부가 훼손되었다.
- 노인봉 : 청석다리 동북쪽 골짜기 안에 있는 봉우리. 황룡리 옹동말과의 경계에 위치한다. 높이 131.5m이다. 봉우리의 동쪽 골짜기에 산제당이 있다.
- 농바위 : 신지굴 뒷산에 있는 바위. 농암의 어원이 됨.
- 농암(籠岩) : 1960년대 금암리 2구(良峙, 籠岩) 중 1구
- 농암(籠岩) : 금암리의 남쪽 부분, 안터, 신지굴, 오얏굴, 통점을 통칭하는 말이다.
- 농암리(籠巖里, 룡점) : 금암리 남쪽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느르실 : 통점 뒤굴 서쪽 철로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 옛날에는 4가구가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1가구가 거주한다.
- 느르실골 : 느르실 마을이 있는 골짜기.
- 도롱굴 : 통점 마을 위뜸 남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안에 통점 저수지가 있다.
- 동곶재 : 똥구재의 다른 이름.
- 동구치(洞口峙) : 똥구재 <1911, 朝鮮地誌資料>
- 동구티 : 통점 터널 입구에 있는 작은 마을. 과거에는 3가구가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1가구도 거주하지 않는다.
- 똥구재 : 통점 마을에서 판교면 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에는 통행이 많았던 고개이며 꼭대기에 성황당이 있다. 장항선 철로가 건설되면서 고개 밑에 터널을 뚫었다. 상투에 낚는 동곶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말이 있다.
- 두루굴 : 절굴저수지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턱굴과 구렁이골 사이에 있다.
- 두루박굴 : 통점 터널 바로 위에 있는 골짜기. 동구티 마을의 남쪽이다.
- 두집매 : 청석다리 마을과 안태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들 가운데 있으며 요즈음 많은 가옥이 들어서 있다. 마을의 남쪽에는 10여 기의 고인돌이 있다.
- 뒤굴 : 통점 마을 위뜸과 동구티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느르실 마을의 서쪽이다.

- 뒷굴재 : 통점 마을 위뜸에서 뒤굴 마을로 통하는 재.
- 마루들 : 통점 위뜸 도롱굴 통점저수지 서북쪽에 있는 들.
- 만덕봉 : 금덩이와 황률리 밤나무굴 사이에 있는 76.3m 산. 함정고개 서쪽이다.
- 바람재 : 금암리 동북쪽 작대봉과 패랭이봉 사이에 있는 재.
- 바름박굴 : 간재재골 안에서 남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통칭하는 이름.
- 바위모퉁이 : 안태 마을과 오얏굴 사이에 있는 바위백이 모퉁이.
- 바위백이 : 안태 마을과 오얏굴 사이에 있는 바위이다. 철로의 서쪽에 있다.
- 배암굴 : 안태 마을과 위신지굴 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 웅기점굴과 안태 사이에 있다.
- 범낭굴 : 신지굴저수지 안에서 북쪽으로 난 깊은 골짜기.
- 보성오씨열녀문 : 금덩이 위뜸, 풍천 임 씨 문중에 시집온 보성 오 씨의 열녀문이다.
- 북판들 : 간재 북쪽에 있는 들.
- 산제당 : 청석다리 마을 동북쪽 골짜기 안에 있는 노인봉과 절굴저수지 사이의 작은 골짜기 안에 있다. 현재도 당집이 남아 있으며, 장터, 청석다리 사람들이 정월 초 사흘에 제를 지낸다. 신수는 없다.
- 새악시굴 : 간재재골 안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1가구가 거주하다가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다.
- 새암굴 : 섬바위굴 동북쪽의 골짜기. 작대봉의 밑이다.
- 서낭덩이 : 간재재 꼭대기에 있었다. 신수로는 벚나무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 서낭덩이 : 위신지굴 남쪽에서 간재재로 통하는 산모퉁이에 있었다. 신수로 벚나무가 있었다고 하나 없어졌다.
- 선박굴 : 통점 터널 서쪽에 있는 골짜기. 두루박굴의 서쪽에 있다.
- 섬바위 : 청석다리 동북쪽에 있는 섬바위굴 안에 있다.
- 섬바위굴 : 청석다리 동북쪽, 절굴저수지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안에 섬바위가 있다.
- 소궁덩이 : 똥구재 꼭대기에 있는 넓적한 바위.
- 수박굴 : 위신지굴 마을 동쪽, 신지굴저수지 안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
- 신기(新基) : 신지굴의 한자 표기.
- 신지굴 : 안태와 통점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위신지굴과 아래신지굴(오얏굴)로 구분된다. 간재재로 통하는 마을이다. 심계굴, 신지굴, 신겅굴, 신젓굴 등 여러 가지로 발음한다.

- 신지굴저수지 : 위신지굴 동쪽에 있는 저수지.
- 심곡(深谷) : 심계골, 안터를 합한 행정리 명. 금암 2리이다.
- 심동(深洞) : 청석다리 부근을 부르는 옛 이름.
- 아래뜸 : 금댕이 마을의 서쪽 부분.
- 아래뜸 : 통점 마을의 서북쪽 부분. 철로의 바로 동쪽, 아래통점이라고도 한다.
- 아래신지굴 : 오얏굴의 다른 이름. 신지굴 입구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아래통점 : 통점 마을 아래뜸의 다른 이름.
- 안태 : 오얏굴(아래신지굴)과 두집매 사이에 있는 마을. 철도의 동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에 들어서 있는 마을이다.
- 양지뜸 : 통점 위뜸과 아래뜸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 초장굴의 입구에 있다.
- 오얏굴 : 안태와 통점 아래뜸 사이에 있는 마을로 철로 바로 동쪽에 있다. 신지굴에 속하기 때문에 아래신지굴이라고도 부른다.
- 오얏굴모퉁이 : 오얏굴과 통점 아래뜸 사이에 있는 산모퉁이.
- 옹기점굴 : 위신지굴 북쪽에 있는 골짜기. 배암골과 지봉박골 사이에 있다.
- 옹동말재 : 청석다리에서 구렁목을 통하여 황룡리 옹동말로 넘어가는 고개.
- 옷샘 : 오얏굴 동남쪽에 있는 샘.
- 옷샘골 : 오얏굴 동남쪽, 옷샘이 있는 작은 골짜기.
- 용산재 : 통점 마을 위뜸에서 산능선을 따라 남쪽 산 정상으로 오르는 고개.
- 용주암(龍珠岩) : 통점 위뜸 절골 안에 있는 절. 보통 통점절로 불린다. 농주암(弄珠岩)이라는 기록도 있다.
- 위뜸 : 금댕이 마을의 동쪽 부분.
- 위뜸 : 통점 마을의 남동쪽 부분.
- 위신지굴 : 신지굴 마을의 동쪽 부분.
- 위통점 : 통점 마을 위뜸의 다른 이름.
- 자장굴 : 통점 위뜸 동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작대봉 : 금암리 동북쪽에 있는 높은 봉우리. 황률리, 높이 318.2m이다.
- 작은수재울 : 통점 아래뜸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장터 : 금암리의 중심지이다. 1일과 6일에 5일 정기 시장이 들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주산초등학교 서쪽, 21호 국도의 북쪽에 섰다가 21호 국도를 북쪽으로 돌려 내어 원래의 21호 국도 남쪽에 시장이 섰다. 요즈음은 시장이 쇠퇴하였다.
- 절골 : 청석다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의 안쪽에서 동북쪽으로 난 골짜기. 안에 절터가

있다.

- 절굴 : 통점 위뜸 남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안에 통점절(용주암)이 있다.
- 절굴저수지: 청석다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의 안쪽에 있는 저수지.
- 절터 : 청석다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의 안쪽 절굴 안에 있다. 절굴저수지의 북쪽이다.
- 주걱봉 : 신지굴 동쪽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347.1m이다.
- 주산역 : 주산초등학교 뒤에 있던 임시역. 주산면의 중심지인 간재와 간치역(良峙驛)이 1.5km 떨어져 있어 불편하여 1960년 3월에 간이역을 설치하였다. 간이역을 설치하기 전에 주산 시장을 간치역이 있던 황률리로 옮기려고 했었으나 당시 금암리 유지들의 반대로 옮기지 못했다고 전한다. 현재는 없어졌다.
- 주산장 : 간재장의 다른 이름.
- 측은너분덜 : 통점 위뜸 동쪽에 있는 완경사지. 상당 부분이 밭으로 개간되었다.
- 지붕박골 : 위신지굴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옹기점골과 참나무골 사이에 있다.
- 지장굴 : 통점 위뜸 동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 쪽대바지 : 위신지굴 마을 동쪽, 신지굴저수지 안에 있는 골짜기.
- 참나무골 : 위신지굴 마을 동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 철뚝너머 : 작은수재울 입구에서 느르실 마을에 이르는 들을 말한다. 통점 마을에서 보아 철로의 너머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청석다리 : 주산면 중심지에서 통점으로 통하던 길에 놓여졌던 다리이다. 10자의 청석(점판암)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주변 마을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 청석다리 : 주산산업고등학교 동남쪽에 있는 마을.
- 초장굴 : 통점 양지뜸 마을 북쪽의 작은 골짜기. 옛날 초분이 많았다고 전한다.
- 큰너분덜 : 통점 위뜸 동쪽에 있는 완경사지. 측은너분덜과 지장굴 사이에 있다.
- 큰수재울 : 통점 아래뜸 서쪽에 있는 골짜기. 상당 부분까지 논으로 개간되었다.
- 턱굴 : 청석다리 동북쪽 골짜기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구렁목의 맞은쪽이다.
- 통점(通店) : 금암리의 남쪽 끝에 있는 마을. 즉, 느르실, 동구티, 뒷굴, 위뜸, 양지뜸, 아래뜸, 지장굴을 통칭한다. 마을의 중심은 철로 동쪽이다. 옛날 통(품질이 낮은 낫쇠)를 굽던 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통점저수지 : 통점 마을 위뜸 도롱굴 안에 있는 저수지.
- 통점절 : 통점 위뜸 절굴 안에 있는 절. 용주암이라고도 부른다.
- 판수굴재 : 청석다리 마을에서 구렁목을 지나 미산면 판수굴로 넘어가는 고개.

- 패랭이봉 : 신지굴 마을 동북쪽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275.1m이다.
- 하야평(下野坪,야관이들) : 금암리, 야룡리 사이의 들 <1911, 朝鮮地誌資料>
- 한점고개 : 함정고개의 다른 이름.
- 함정고개 : 금댕이 마을에서 황률리 밤나무굴로 넘어가는 고개. 613호 지방도가 통한다. 옛날 산 능선을 타고 다니던 호랑이를 잡기 위해 함정을 파 놓아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화약창굴 : 안태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장항선 철로 건설 당시 화약 창고가 있던 장소이다.



용주사(1960년대)



주산초교 앞 비석군(2007)

## 2. 동오리(東五里)

남포군 불은면(佛恩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막리(東幕里), 내동(內洞), 오상리(五常里)와 심전면(深田面)의 평장리(平章里) 일부를 병합하여 동막(東幕)과 오상(五常)의 이름을 따서 동오리라 하고 보령군 주산면에 편입하였다.

- 곶굴 : 곶재 남쪽에 있는 마을. 양지뜸과 음지뜸으로 구분된다. 경주 이 씨와 경주 김 씨의 집성촌이다.
- 곶굴고랑 : 오상태와 곶굴 음지뜸 사이에 있는 골짜기.
- 곶재 : 곶굴 마을에서 미산면 평라리로 넘어가는 고개. 과거에는 이곳으로 통행하다가 매바위 앞으로 길을 돌려 낸 후, 한동안 통행이 없었다. 근래 보령댐 건설로 고개를 낮추고 도로를 확·포장하였다.  
고개의 꼭대기에 성황당이 있었으며 고개의 남쪽에는 큰 소나무가 있는데 일제 시대 양민을 매어 놓고 학살한 나무라 한이 서려있어 건드리면 피가 난다고 전한다.

- 공짜보 : 동오리, 삼곡리, 화평리 지역에 물을 대던 보. 미산면 지역에 있었다.
- 국수봉 : 안골 마을 북쪽에 있는 봉우리. 미산면 평라리와 경계를 이룬다. 보령댐 건설 공사로 정상 부분이 훼손되었다. 쇠말봉이라고도 한다.
- 고깔바위 : 선돌 마을. 옛 도로 서쪽에 있는 바위 모두 고인돌이다. (선돌 참조)
- 내동(內洞) : 안골의 한자 표기.
- 당산재 : 곰굴과 안골 사이에 내민 산줄기. 옛날에 당집이 있었을 것 같으나 마을 주민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 동곡주막(東谷酒幕, 동실주막) : 동오리 동실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동막(東幕) : 1960년대 동오리 2구(五常, 東幕) 중 1구, 정주안과 안골을 통칭.
- 동메산 : 선돌 마을 남쪽에 서쪽으로 내민 작은 산줄기.
- 동산 : 안골 위뜸 북쪽에 내민 작은 산. 높이 79.0m이다.
- 동오1리 : 1반 안골, 2반 정주안.
- 동오2리 : 1반 선돌, 2반 오상태, 3반 곰굴.
- 동오리들 : 안골과 곰굴 서쪽에 있는 들.
- 두밭재 : 곰굴 읍지뜸 동쪽 골짜기. 곰굴고랑의 북쪽이다.
- 뒷고랑 : 정주안 마을 북쪽 골짜기.
- 마당바위 : 선돌 북쪽에 있는 넓은 바위. 고인돌로 추정된다.(선돌 참조)
- 매바위모퉁이 : 매바위 앞 모퉁이.
- 머구리고랑 : 안골 위뜸 수명재 밑에 있는 골짜기.
- 명덕봉(明德峰) : 명덕봉의 한자 표기.
- 무네미 : 수문재의 다른 이름.
- 무수굴 : 안골 위뜸 북쪽 산맥이재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범바위 : 선돌 마을과 삼곡리 능굴 사이에 있는 바위.
- 보도라 : 매바위 앞에 있던 퇴적 지형. 공짜보의 수로가 통과하는 곳. 논이었다.
- 보두막재 : 오상태에서 곰굴로 넘어가는 재.
- 불격재 : 안골 마을 아래뜸 서북쪽에 내민 산.
- 산맥이재 : 안골 위뜸 동북쪽에 있는 고개. 미산면 평라리 성재로 통한다.
- 상동백이 : 곰굴 읍지뜸 쪽으로 내민 작은 산줄기.
- 새보 : 보령댐 제방 자리에 있던 보. 동오리와 화평리에 물을 대던 큰 보이다. 공자보를 새로 만든 데서 붙은 이름이다.
- 선돌 : 동오리 남쪽, 삼곡리와의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 선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이다.

- 선돌 : 선돌 마을 앞에 세워져 있는 높이 1.8m의 긴 바위이다. 옛날 여자 장사가 머리에 꼬깔바위를 쓰고, 마당바위를 치마폭에 감싸 안고, 지팡이 바위를 짊으며 가는 도중에 치마폭이 터지면서 마당바위가 떨어지는 바람에 꼬깔바위도 굴러 떨어지고, 지팡이 바위를 짊어 땅에 박혀 있다고 한다. 이 지팡이 바위가 바로 선돌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 바위를 뉘어 놓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전설도 있다.
- 송장바위 : 화산 마을 앞 냇물 속에 있는 바위.
- 쇠때배기 : 정주안 마을과 안굴 아래뜸 사이에 내민 작은 산줄기. 솥대와 관련 있는 지명이다.
- 쇠말봉 : 국수봉의 다른 이름. 쇠말뚝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수명재 : 안굴 위뜸 동쪽에 있는 고개. 미산면 평라리 성재로 넘어간다.
- 수문재 : 수명재의 다른 이름.
- 아래뜸 : 안굴 마을의 서쪽 부분.
- 안굴 : 동오리 북쪽 마을. 위뜸,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 양지뜸 : 곰굴의 북쪽 부분.
- 열녀문 : 오상태 마을 입구에 있는 경주이씨 李震榮의 처인 남포백씨의 열녀문이다. 남편이 사망하자 머리를 빗지 않고 옷을 빨아 입지 않았으며 애통해 하다가 2년이 지난 후, 피눈물을 흘리다가 21세로 죽었다. 고종 때 정려가 내려졌다.
- 오상(五常) : 1960년대 동오리 2구(五常, 東幕) 중 1구. 오상태의 한자 표기.
- 오상리(五常里, 오상터) : 동오리 오상태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오상태(五相台) : 오상태의 한자 표기.
- 오상태 : 곰굴과 선돌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로 경주 이 씨 집성촌이다. 이곳은 벌집 형국이라 타성이 들어와 살면 망한다는 전설이 있다. 마을의 입구에는 경주 이진영의 처 남포 백 씨의 열녀문이 있다. 풍천 임 씨 족보에 의하면, 고려 공민왕 때 임향(任珦)이 이곳(熊峙下五常)에 정착했다고 전해진다. 다섯 명의 재상이 은거하여 오상태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 웅치(熊峙) : 곰재의 한자 표기.
- 위뜸 : 안굴의 동쪽 부분.
- 음지뜸 : 곰굴의 남쪽 부분.
- 입석(立石) : 선돌의 한자 표기.
- 작은명덕봉 : 선돌 마을 동쪽에 있는 벌 명덕 같은 봉우리. 높이 247.5m이다.

- 작은적굴 : 정주안 마을 북쪽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 정주안 : 안굴 서북쪽 끝에 있는 마을. 마을 앞으로 큰 봇물이 통한다.
- 중보 : 새보와 배바위 사이에 있던 보.
- 증판보 : 정주안 마을 서북쪽에 있는 보. 화산 마을에 물을 댄다.
- 지팽이바위 : 선돌의 다른 이름. (선돌 참조)
- 쪽다리 : 정주안 마을 서북쪽에 있던 다리. 보를 건너던 다리이다.
- 큰명덕봉 : 곰굴 남동쪽에 있는 벌 명덕 같은 봉우리. 높이 277.5m이다.
- 큰적굴 : 정주안 마을 북쪽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 화산내다리 : 화산 마을로 통하는 다리.
- 화산보 : 정주안 마을 남서쪽에 있던 보.



정주안 마을(2005)



곰굴, 오상태(2008)

### 3. 삼곡리(三谷里)

남포군 불은면(佛恩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곡리(東谷里) 천곡리(泉谷里) 정곡리(井谷里)와 월현리(月峴里) 일부를 병합하여 東谷, 泉谷, 井谷의 세谷자를 따서 삼곡리라 하여 보령군 주산면에 편입하였다.

- 가마굴 : 위골말의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방아굴의 남쪽에 있다.
- 간디굴 : 큰샘실 읍지뜸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 송날과 뒷메 사이에 있다.
- 강가목계 : 방죽안 뒷번데기의 다른 이름.
- 거북바위 : 동실 마을 서쪽 정자나무 밑에 있다.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다.
- 골말 : 동실 남쪽 부분. 아랫골말과 윗골말로 구분된다.

- 공동산 : 능굴 남쪽에 있는 산. 능굴 마을 공동 소유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 구렁목 : 방죽안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남정주 : 큰샘실과 작은샘실 사이에 있는 산줄기의 서쪽 끝. 큰 정주나무가 있었는데 죽고 근래 다시 심었다.
- 능굴 : 삼곡리 북쪽 끝에 있는 마을. 위뜸과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정곡초등학교가 있었다.
- 다락굴 : 구렁목 안에 있는 작은 마을.
- 다룡고개 : 월현 마을에서 창암리 남전 마을로 통하는 낮은 고개.
- 닭바위 : 큰샘실 입구에 있는 바위.
- 동곡 : 동실의 한자 표기.
- 동곡리(東谷里) : 동실의 옛 한자 표기
- 동곡제언(東谷堤堰) : 주산면 삼곡리 동실 현 삼곡저수지 자리. 방죽안, 방죽밑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 <1911, 朝鮮地誌資料>
- 동실 : 삼곡리 남동쪽에 있는 큰 마을. 골말, 아래뜸, 위뜸, 태복알, 언지매, 삼십육굴 등을 통칭한다.
- 뒤굴다랭이 : 동실 마을 위뜸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뒤테메 : 월현 마을 북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테피식 토성이 있다.
- 뒷메 : 큰샘실 동쪽에 있는 산. 간디골과 큰골 사이에 있다.
- 들돌 : 마을 앞 정자나무 밑에 2개의 들돌이 있다.
- 말무덤 : 삼십육굴과 샘실 사이에 있는 청룡의 끝 부분.
- 멩택이 : 작은샘실 동북쪽에 있는 산봉우리.
- 멩택이고랑 : 작은샘실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방아굴 : 동실 위뜸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큰방아굴과 작은방아굴로 나뉜다.
- 방아다리들 : 언지매 방죽 밑에 있는 들.
- 방죽밑 : 삼곡저수지 북쪽에 있는 들.
- 방죽안 : 삼곡저수지 남동쪽에 있는 들. 즉 골말의 남서쪽에 있는 들이다.
- 방죽안뒷번데기 : 아랫골말 북쪽에 있는 언덕. 강가목께라고도 부른다.
- 배나무굴 : 작은샘실과 능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 범바위 : 능굴 북쪽 동오리와의 경계에 있는 바위.
- 범배굴 : 작은샘실과 능굴 사이에 있는 배나무굴 위쪽의 골짜기. 범바위 밑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북개봉 : 동실 마을 동쪽에 있는 산. 307.3m로 기우제를 지내곤 하였다. 미산면 늑전리, 삼계리의 경계이다.
- 불국산 : 동실 위뜸과 위골말 사이에 있는 산. 과거에 벌거숭이 산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비랭이들 : 옛 정곡초등학교 남쪽의 들.
- 삼곡1리 : 1반 능굴, 2반 작은샘실, 3반 큰샘실.
- 삼곡2리 : 1반 월현, 2반 방죽안, 3반 동실, 4반 태봉.
- 삼곡리선돌 : 동실 마을 서쪽 정자나무 밑에 있다. 돌이 작고 돌에 주소를 새겨 놓은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의 선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들도 선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 삼곡저수지 : 월현 마을과 골말 사이에 있는 저수지.
- 삼십육굴 : 동실과 샘실 사이에 있는 마을. 연지매 쪽뿌리와 청룡 사이에 있다.
- 새터말 : 삼곡리 서쪽 월현 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 화평리 샷갓재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있다.
- 샘실 : 삼곡리 북쪽에 있는 큰 마을. 큰샘실(큰말)과 작은샘실(작은말)로 구분된다.
- 샘실재 : 삼십육굴에서 샘실로 넘어가는 재.
- 샘실저수지 : 큰샘실 서쪽에 있는 저수지.
- 생여집 : 삼십육굴 서쪽 길가에 있었다.
- 생여집들 : 삼십육굴 서쪽에 있는 들.
- 소리개재 : 구렁목과 황률리 주막거리 사이에 있는 재.
- 송날 : 큰샘실 남동쪽에 있는 산능선. 테무굴과 간디굴 사이에 있다.
- 쇠꼬지재 : 위골말에서 쇠꼬지로 통하는 고개.
- 시그내재 : 새터말에서 창암리 시그내로 넘어가는 재.
- 신전재 : 큰샘실 큰골에서 미산면 늑전리로 통하는 재.
- 아래골말 : 골말의 서쪽 부분.
- 아래뜸 : 능굴의 옛 정곡초등학교 북쪽 부분.
- 아래뜸 : 동실의 중심 마을. 동실 위뜸과 태복알 사이에 있다. 口字형의 큰 기와집이 있다.
- 양지뜸 : 큰샘실의 북쪽 부분.
- 여수해굴 : 태복알 마을의 동쪽 골짜기. 장구매와 은골 사이에 있다.
- 연지매 : 용오리골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 연지매방죽 : 동실 마을 서북쪽에 있는 저수지. 연지매의 서쪽이다.
- 연지매쪽뿌리 : 연지매와 삼십육굴 사이에 내민 능선 끝.
- 영월치(迎月峙) : 영월이재 <1911, 朝鮮地誌資料>
- 용오리굴 : 동실 마을에서 미산면 늑전리로 넘어가는 용오리재의 서쪽 골짜기.
- 용오리재 : 동실 마을에서 미산면 늑전리로 넘어가는 고개.
- 월현(月峴) : 삼곡리의 서쪽 마을. 613호 지방도의 서쪽이다.
- 월현 : 월현 마을과 황률리 사이에 있는 고개. 고개의 남동쪽 언덕에 고인돌 5기가 있다.
- 월현리(月峴里, 다른고기) : 삼곡리 월현(다롱고개)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월현저수지 : 삼곡저수지의 다른 이름.
- 위골말 : 골말의 동쪽 부분.
- 위들 : 샘실저수지 서쪽에 있는 들.
- 위뜸 : 능굴의 옛 정곡초등학교 동쪽 부분.
- 위뜸 : 동실 마을의 동남쪽 부분.
- 은골 : 동실 아래뜸의 동쪽 골짜기. 죽은방아굴과 여수해골 사이에 있다.
- 음지뜸 : 큰샘실의 남쪽 부분.
- 이십리굴 : 큰샘실 양지뜸 동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북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
- 작대봉 : 동실 마을 남동쪽에 있는 산봉우리. 금암리, 삼계리와와의 경계이다.
- 장구매 : 여수해골과 용오리굴 사이에 내민 산줄기. 태복알의 동북쪽에 있다.
- 정곡(井谷) : 샘실의 한자 표기.
- 정곡리(井谷里, 식암실) : 삼곡리 샘실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정곡초등학교 : 능굴에 있던 초등학교이다. 학생 수가 줄어 폐교되고 과학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정자나무 : 동실 마을 서쪽에 있다. 나무 밑에 거북 바위와 선돌, 들돌이 있다. 칠월칠석에 제를 올린다.
- 줄바위 : 죽은샘실 입구, 줄바위들에 있는 바위. 바위 여러 개가 줄줄이 노출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줄바위들 : 죽은샘실 서쪽에 있는 들.
- 죽은말 : 죽은샘실의 다른 이름.
- 죽은말재빼기 : 큰샘실 양지뜸에서 죽은샘실로 넘어가는 고개.
- 죽은방아굴 : 동실 위뜸 방아굴의 동쪽 골짜기. 큰방아굴과 은골 사이에 있다.

- 죽은샘실 : 샘실 마을의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 천곡리(泉谷里,시암실) : 삼곡리 샘실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청룡 : 샘실과 삼십육굴 사이에 있는 산. 샘실에서 보아 좌청룡에 해당된다.
- 큰굴 : 큰샘실 양지뜸 동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 큰말 : 큰샘실의 다른 이름.
- 큰방아굴 : 동실 위뜸 방아굴의 남쪽 골짜기. 가마굴과 죽은방아굴 사이에 있다.
- 큰샘실 : 샘실의 남쪽에 있는 마을.
- 태복알 : 동실 마을의 북쪽 부분이다.
- 테무굴 : 큰샘실의 남동쪽 골짜기.
- 허창굴 : 죽은샘실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황새바위 : 연지매방죽 남쪽 제방 옆에 있었다. 돌이 고여져 있는 전형적인 고인돌이라 마을 사람들이 속을 파 보곤 하였으나 경지정리 때 매몰되었다.
- 황새산 : 구렁목과 골말 사이에 있는 산.



동실 정자나무와 거북바위(2008)



벚꽃길(2008)

## 4. 신구리(新九里)

본래 남포군 습의면(習衣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촌(新村) 일부와 구산리(九山里)를 병합하여 신구리라 해서 보령군 주산면에 편입하였다.

- 개암굴 : 신구저수지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채룡고개의 동북쪽에 있다.
- 거그메 : 신구리의 동쪽에 있는 큰 마을. 큰뜸, 대숲굴, 엄동굴, 삼박굴로 구성된다. 옛날에는 제주 고 씨, 평강 채 씨, 함평 이 씨 등이 정착해서 살았으나 이제는 대부분

떠나가고 여러 성씨가 섞여 산다. 옛 습의면의 중심지였다고 전한다. 1972~1973년 새마을 사업을 선도하여 많은 사람들의 견학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 거북메 : 거그메 마을의 다른 이름.
- 계뱅이골 : 두듬재 남쪽에서 동북으로 난 골짜기. 야룡리 괴뱅이로 통하는 고개가 있다. 골짜기 위에는 공동묘지가 있다.
- 계뱅이공동묘지 : 계뱅이골 안에 있는 공동묘지.
- 고랑태골 : 거그메 엄동굴 동쪽에 있는 골짜기. 제비형국의 동쪽이다.
- 구듬재 : 신구리와 야룡리 사이의 고개. 요즈음은 보통 아리랑고개라고 부른다.
- 구리박골 : 거그메 동쪽 병목안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큰고랑과 새남정고랑 사이에 있다.
- 구산(九山) : 1960년대 신구리 2구(九山, 竹內) 중 1구.
- 구산(九山) : 거그메의 한자 표기. 구산(龜山)으로 표기하다가 변한 것이다.
- 구산(龜山) : 거그메의 한자 표기.
- 구산리(九山里, 거북메) : 신구리 거그메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구신바위 : 거그메 위뜸 북쪽에 있던 바위.
- 군계 : 돌모루 마을 동쪽 국도변에 있는 마을. 서천군과의 경계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군계내 : 신구리와 서천군의 경계를 이루는 내.
- 군계다리 : 군계 남쪽에 있는 다리. 서천군과의 경계이다.
- 군계저수지 : 신구저수지의 다른 이름
- 대숲굴 : 거그메의 서북쪽 부분.
- 돌머리 : 돌모루의 다른 이름.
- 돌모루 : 돌모루 마을 서쪽에 있는 산.
- 돌모루 : 신구리 남쪽 끝에 있는 마을. 군계와 안터 사이에 있다.
- 돌괘모탱이 : 죽나무굴 앞 길옆에 있는 황새바위 근처를 부르는 이름.
- 두거재골 : 죽나무굴 북쪽에 있는 골짜기. 유곡저수지 제방을 축조한 두거재의 남쪽이다.
- 독너머 : 신구저수지 위부분의 동쪽 골짜기.
- 뒤재빠기 : 죽나무굴 위뜸에서 신구저수지로 넘어가는 고개.
- 뒷들 : 군계저수지와 제방 양쪽의 들을 통칭한 이름.
- 말뚝 : 말뚝공동묘지와 신구저수지 사이의 들.

- 말뚝공동묘지 : 신구저수지 북쪽에 있는 공동묘지.
- 매봉재 : 군계 북쪽에 있는 산. 죽나무굴 위뜸과 신구저수지 사이에 있다.
- 배암날 : 채독백이골과 병목안 사이에 내민 산줄기.
- 버들내 : 유곡 저수지에서 황새들로 통하는 내. 유곡리와의 경계가 된다.
- 병목안 : 거그메 동쪽 골짜기. 병목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북당굴 : 거그메 삼박굴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 북바위 : 죽나무굴 동북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 불무굴 : 죽나무굴 위뜸의 북쪽(양지쪽) 부분.
- 삼박굴 : 거그메 동쪽의 큰 골짜기. 안에 많은 골짜기들이 있다.
- 상봉 : 거그메 남쪽의 봉우리. 서천군과의 경계이다. 높이 174.5m이다.
- 상봉 : 계벵이골 동북쪽에 있는 봉우리.
- 새남정고랑 : 거그메 동쪽 병목안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 생여바위 : 죽나무굴 동북쪽에 있는 바위. 바위가 크고 넓어서 마을 사람들의 야유회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유곡리 사람들은 상제(上帝) 바위라고도 부른다.
- 서낭당이 : 구뜸재에 있었다.
- 서낭당이고랑 : 연봉 마을 북쪽 골짜기. 서낭당이 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석우(石隅) : 돌모루의 한자 표기.
- 소재 : 신구저수지 동남쪽에 있는 산. 산너머의 마을 이름이기도 하다.
- 솔꽃티 : 21호 국도의 동쪽, 거그메 마을 입구를 부르는 이름. 옛날에는 큰 소나무가 여러 그루 서 있었다.
- 신구1리 : 1반 엄동굴, 2반 대숲굴, 큰뜸.
- 신구2리 : 1반 돌머리, 2반 안터, 3반 음지뜸, 4반 양지뜸.
- 신촌(新村) : 죽나무굴의 옛 이름.
- 신촌리(新村里) ; 죽나무굴의 옛 이름.
- 신촌주막(新村酒幕, 스말주막) : 새말(중남굴)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아래뜸 : 거그메 큰뜸의 서쪽, 거그메 입구에 있는 마을.
- 아리랑고개 : 구뜸재의 요즘 이름. 21호 국도가 통한다. 1950년대 후반경부터 학생 들을 중심으로 아리랑고개라고 불렸다.
- 안산 : 거그메 엄동굴 마을 남쪽에 있는 100.8m의 산. 서천군과의 경계이다.
- 안산너머 : 거그메 엄동굴 서쪽에 있는 골짜기. 엄동굴과 개암굴 사이에 있다.
- 안장바위 : 엄동굴 마을 뒤 골짜기에 있는 바위.



- 안장바위골 : 엄동굴 마을 뒤 안장바위가 있는 골짜기.
- 안터 : 신구리 서남쪽 끝 서천군과의 경계에 있는 마을. 돌모루와 죽나무골 음산뜸 사이에 있다.
- 안터재 : 죽나무골 위뜸에서 남쪽 안터 마을로 통하는 고개.
- 안터재빼기 : 안터와 돌모루 사이의 고개.
- 양지뜸 : 죽나무골의 서북쪽 마을. 양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엄동굴 : 엄동굴 마을이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 연봉 : 말뚝 북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173.5m이다.
- 연봉 : 신구저수지와 구듬재 사이, 21호 국도의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
- 오얏골 : 거그메 삼박골 동북쪽 골짜기. 북당골과 채독백이골 사이에 있다.
- 원구산(元九山) : 거그메 마을
- 위뜸 : 거그메 큰뜸의 동쪽 부분.
- 위뜸 : 죽나무골의 동북쪽 부분.
- 음산뜸 : 죽나무골 양지뜸 남쪽 부분. 음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장구배 : 연봉 마을의 다른 이름.
- 장굴 : 죽나무골 위뜸의 동북쪽 골짜기.
- 재룽고개 : 신구저수지 동쪽,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소재로 넘어가는 고개.
- 절터 : 거그메 구리박골 북쪽에 있다.
- 제비형국 : 거그메 엄동굴과 고랑태골 사이의 산.
- 죽나무골 : 신구리 서쪽에 있는 마을. 위뜸과 양지뜸, 음산뜸으로 구분된다.
- 죽낭굴고랑 : 죽나무골 위뜸 동쪽 골짜기.
- 죽내(竹內) : 1960년대 신구리 2구(九山, 竹內) 중 1구.
- 중낭굴 : 죽나무골의 다른 이름.
- 중낭굴재빼기 : 죽나무골 위뜸 불무굴에서 북쪽의 두거재골로 통하는 고개.
- 죽은고랑 : 거그메 엄동굴 마을 남동쪽 골짜기. 큰고랑의 남쪽이다.
- 채독배기골 : 거그메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오얏골과 배암날 사이에 있다.
- 초분골 : 구듬재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 초분을 했다고 전한다.
- 추레박골 : 토골 밑에 있는 골짜기.
- 큰고랑 : 거그메 동쪽 삼박골 남쪽 골짜기. 구리박골의 서쪽이다.
- 큰고랑 : 거그메 엄동굴 마을 남동쪽 골짜기. 죽은고랑의 북쪽이다.
- 큰뜸 : 거그메의 서쪽 큰 마을. 위뜸,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 큰서낭 : 구듬재의 성황당을 부르는 다른 이름.
- 탕관바위 : 죽나무굴과 돌모루 사이의 산에 있는 바위. 모양이 탕관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토골 : 거그메 동쪽 병목안 안에 있는 골짜기. 피난골의 동쪽에 있다.
- 피난골 : 거그메 동쪽 병목안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토골과 새남정고랑 사이에 있다.
- 해남정고랑 : 계뱅이골 입구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 황새들 : 죽나무굴 입구의 들.
- 황새바위 : 죽나무굴 양지뜸 입구에 있는 큰 바위.
- 황소배들 : 안터 마을 앞에 있는 들. 서천군 땅에 있는 황소배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죽나무굴 정자나무와 거북(1996)



황새바위(1996)

## 5. 야룡리(野龍里)

남포군 습의면(習衣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야리(上野里), 하야리(下野里)의 각 일부와 회룡리(回龍里)를 병합하여 야룡리라 해서 보령군 주산면에 편입하였다.

- 가살매 : 수량골 마을 위쪽의 산골짜기.
- 가장모랭이 : 산조개 마을 동북쪽 모랭이. 새마을 유아원이 있다.
- 가재골 : 수량골 마을 위쪽 산 골짜기.

- 각시바위 : 야관이 마을 북쪽에 있던 바위. 농공단지 공사로 없어졌다.
- 갓골 : 오얏골의 다른 이름.
- 개구리봉 : 산조개저수지 남쪽 큰골과 흘짜골 사이에 내민 작고 둥그런 산 봉우리. 높이 100.2m이다.
- 고병(高屏) : 괴뱅이의 한자 표기.
- 골밭 : 괴뱅이 마을의 가운데 부분.
- 괴뱅이 : 산조개와 보검동 사이에 있는 마을. 보검동과의 사이에 있는 산에 196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32사단 97연대 본부가 주둔하였다. 골짜기의 남쪽 끝에 있는 마을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 구듬재 : 야룡리와 신구리 사이에 있는 아리랑고개의 옛 이름. 과거에는 모두 구듬재로 불렸으나 요즘은 아리랑고개로 부르는 경향이다. 九音峙라는 기록도 있다.
- 구듬태 : 구듬재의 다른 이름.
- 구레 : 수랑굴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논.
- 군갯들 : 새터말 앞의 들.
- 꽃밭 : 송산말 아래뜸 서북쪽에 있는 낮은 산. 높이 24.5m이다.
- 느진목이 : 목너머 마을의 다른 이름. 수랑굴에서 용제저수지로 향하는 낮은 산줄기를 말하기도 한다.
- 답박굴재 : 수랑굴에서 답박굴로 넘어가는 재.
- 동메 ; 수랑굴 마을 가운데로 내민 작고 둥그런 산줄기. 목탁이라고도 부른다.
- 마빡재 : 수랑굴 양지뜸 입구에 내민 낮은 산줄기.
- 매봉 : 야룡리 서북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 주야리 답박굴과의 경계이다.
- 매봉재 : 산조개 저수지 위, 갓골 아래에 있는 산.
- 목너머 : 수랑굴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마을. 용제저수지의 옆이다.
- 무넝기 : 용제저수지 수문 근처를 일컫는 말.
- 바위안집 : 수랑굴 서쪽 산 밑의 큰 바위 옆에 있는 집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방죽논 : 괴뱅이 마을 안에 있는 논.
- 방죽안 : 괴뱅이 마을의 북쪽 부분.
- 방죽안재 : 산조개 아래뜸에서 괴뱅이 골밭으로 넘어가는 재.
- 배방굴 : 산조개 저수지 동남쪽 호령굴의 다른 이름.
- 벼락재 : 산조개저수지 남동쪽, 유투나무굴과 호령굴(배방굴) 사이에 있다. 옛날 벼락이 떨어졌었다고 주민들은 말하나 경사가 급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벼락은 벼랑의 옛말이다.

- 병목안 : 산조개저수지 남쪽의 골짜기 끝 부분에 있는 마을. 병의 목처럼 좁은 입구를 지나 안에는 넓어져서 붙여진 이름이다.
- 보검동(寶劍洞) : 보검동의 한자 표기
- 보검동 : 송산말 맞은쪽, 21호 국도의 동쪽에 있는 마을. 보검장갑형의 묘자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 북개봉 : 산조개저수지 동쪽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금암리와외의 경계가 된다. 예부터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1919년 3월 16일 주립산만세운동의 연장으로, 3월 17일 박윤화 선생이 이곳에 올라 태극기를 꽂고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 북구봉(伏拘峰) : 북개봉의 다른 이름.
- 보검동재 : 괴뱅이에서 보검동으로 넘어가는 재.
- 북판들 : 산조개 앞들과 군갯들 사이의 들. 철로와 21호 국도 사이이다.
- 불당굴 : 산조개 저수지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오얏골과 큰골 사이에 있다.
- 봉구재 : 산조개 위뜸에서 괴뱅이로 넘어가는 재.
- 빗독거리 : 보검동, 송산말, 작은짓재, 큰짓재, 괴뱅이로 길이 갈라지는 보검동 앞 5거리. 비석이 있었다고 전한다.
- 산조개 : 야룡리의 동쪽에 있는 마을. 큰 골짜기의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골짜기의 서쪽에 가옥이 밀집되어 있다. 아래뜸, 위뜸으로 구분된다.
- 산조개앞들 : 산조개 마을 앞, 산조개저수지 북쪽의 들.
- 산조개저수지 : 산조개 마을 남쪽에 있는 저수지.
- 산지고개제언(山之古介堤堰) : 주산면 야룡리 산조개마을 방죽 <1911, 朝鮮地誌資料>
- 삼거리 : 괴뱅이 마을 입구를 일컫는 이름. 옛날 큰 도로가 재배, 금암리, 비인 방향으로 통하던 삼거리이다.
- 상봉 : 보검동의 동남쪽에 있는 산봉우리. 신구리와외의 경계이다. 높이 149.6m이다.
- 상봉고랑 : 괴뱅이 마을의 남쪽 골짜기.
- 상봉고랑 : 보검동 남동쪽 골짜기.
- 상야(上野) : 1960년대 야룡리 2구(回龍,上野) 중 1구.
- 상야(上野) : 괴뱅이, 보검동, 송산말, 수랑골, 수산골을 합한 행정동 이름.
- 상야리(上野里) : 야룡리 서쪽 지역의 옛 이름.
- 상야리(上野里, 야관이) : 주산면 야룡리 ‘야관이’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상야리주막(上野里酒幕,야관이주막) : 주산면 야룡리 야관이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새무장골 : 산조개 위뜸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새태말 : 야룡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 21호 국도와 철로의 서쪽에 있다.
- 서낭댕이 : 새터말 서쪽 용가마재에 있었다.
- 서낭댕이 : 송산말과 유곡리 벼들 사이의 작은지재 위에 있다.
- 서낭댕이 : 수량굴과 유곡리 벼들 사이에 있는 큰지재 위에 있다.
- 성줏골 : 산조개저수지 서남쪽의 첫 번째 골짜기. 송적굴이라고도 한다.
- 성줏골 : 송적굴의 다른 이름.
- 송산말 : 수량굴과 수산굴 사이에 있는 마을. 마을 앞으로 서해화력으로 가는 산업용 철로가 지난다. 위뜸,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 송현(松峴) : 송산말의 한자 표기
- 쇠마당골 : 쇠무장골의 다른 이름.
- 수량굴 : 야룡리의 서북쪽에 있는 마을. 주야리와 경계한다. 수렁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경지 정리되어 대부분의 수렁은 없어졌다.  
마을 안에는 침식되고 남은 큰 바위가 많다. 양지뜸, 음산뜸으로 구분된다.
- 수량굴재 : 송산말과 수량굴 사이에 있는 재.
- 수량굴재 : 유곡리 벼들에서 송산말, 수량굴로 넘는 재.
- 수박골 : 산조개저수지 서남쪽 불당굴의 다른 이름.
- 수박재 : 수량굴재 북쪽에 있는 봉우리. 157.3m이다.
- 수산굴 : 야룡리 남쪽에 있는 마을. 아리랑고개의 북서쪽이다.
- 수산굴고랑 : 수산굴 마을 앞 들.
- 송적굴 : 산조개저수지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새무장골과 오얏골 사이에 있다.
- 아래들 : 용제저수지 북쪽의 들.
- 아래뜸 : 송산말의 동쪽 부분.
- 아래뜸 ; 산조개 마을의 북쪽 부분.
- 아랫들 : 용제저수지 북쪽에 있는 들.
- 아리랑고개 : 신구리와 야룡리 사이의 고개. 과거에는 구둑재로 불렸으나 요즘은 아리랑고개로 불린다.
- 안산 : 수산굴과 송산말 사이에 있는 작은 산줄기. 작은지재에서 동쪽으로 내민 산줄기이다.
- 안산뿌리 : 안산 앞(동쪽) 들.

- 야곶(也串) : 야관의 한자 표기.
- 야관리(野館里) : 야관의 옛 한자 표기.
- 야관이 : 야룡리의 북쪽 끝에 있는 마을. 마을의 북쪽 부분은 모두 주산농공단지로 들어가고 일부만 남아 있다.
- 야관이재 : 새태말에서 야관리로 넘어가는 재.
- 야룡1리 : 1반 윗산조개, 2반 아랫산조개, 3반 새텃말.
- 야룡2리 : 1반 수랑굴, 2반 송산말, 3반 수정동.
- 양지뜸 : 수랑굴 마을의 북쪽 부분. 남향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어의곡제언(於義谷堤堰) : 주산면 습의면에 있던 방죽. <1911, 朝鮮地誌資料>
- 연봉 : 야룡리, 신구리, 유곡리의 경계가 되는 산봉우리. 높이 173.3m이다.
- 오얏굴 : 산조개저수지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불당굴과 송적굴 사이에 있다.
- 옷샘 : 괴뱅이 마을에 있는 샘. 물이 차서 옷 오른 사람이 목욕을 하면 낫는다고 한다.
- 왕소나무밭 : 송산말 위뜸 북쪽에 있는 산. 왕소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용가마재 : 새태말에서 주야리 쪽으로 넘어가는 재.
- 용가마재 : 용제저수지 제방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용제저수지 : 괴뱅이와 수랑굴 앞에 있는 저수지. 저수지 둑. 수랑굴, 주야리로 통하는 도로가 나 있다.
- 위뜸 : 산조개 마을의 남쪽 부분.
- 위뜸 : 송산말의 서쪽 부분.
- 윗들 : 용제저수지 남쪽에 있는 들.
- 유투나무굴 : 산조개저수지 남동쪽 골짜기. 흘짜굴과 호령굴 사이에 있다.
- 음산뜸 : 수랑굴의 남서쪽 부분.
- 작은굴 : 수랑굴 음산뜸 서쪽의 바위 굴. 동학란 때 대피하던 굴이라고 전해온다.
- 작은지재 : 유곡리 버들과 중상굴 사이에 있는 고개. 유곡리, 증산리 주민들이 주산면 소재지로 다니던 큰 길이었다.
- 장승백이 : 야관리로 통하는 길가에 있는 논. 장승이 있었다고 전한다.
- 점촌 : 보검동 입구 삼거리의 북쪽 부분이다. 21호 국도의 북쪽, 용제저수지 옆이다. 옛날 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현재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다.
- 점촌모퉁이 : 삼거리의 북쪽, 용제저수지로 내민 지형을 말한다. 옛날 점촌의 모퉁

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정자나무 : 송산말의 아래뜰에 있다. 수백 년 된 느티나무인데 속이 비어 있다.
- 정정모탕이 : 새태말 북쪽에 있는 모룽이. 야관이로 돌아가는 모룽이이다.
- 조개당산 : 산조개 마을 서쪽에 있는 산.
- 좁박굴 : 수산굴 맞은쪽, 21호 국도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주동(酒洞) : 수랑굴의 한자 표기.
- 중바위 : 큰지재 남쪽 산봉우리에 있는 바위.
- 중상굴고개 : 수산굴에서 유곡리 버들로 넘어가는 고개. 작은지재의 남쪽이다.
- 지재 : 유곡리와 야룡리 사이에 있는 재. 큰지재와 작은지재가 있다.
- 지치(芝峙) : 지재의 한자 표기.
- 짓재 : 지재의 다른 이름.
- 차돌이마 : 산조개 서북쪽에 있는 모룽이. 차돌이 많다.
- 참나무재 : 야관이 마을 서쪽에 있던 재.
- 체석굴 : 팽나무재 서북쪽에 있는 마을. 마을의 서쪽에는 군부대가 있었고, 마을 바로 앞으로 철로가 지난다.
- 초수굴(초석굴) : 체석굴의 다른 이름.
- 큰굴 : 산조개저수지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골짜기 안에 몇 가구가 거주했었다.
- 큰굴 : 수랑굴 음산뜰 서쪽에 있는 바위 굴. 동학란 때 대피하던 굴이라고 전한다.
- 큰지재 : 수랑굴과 답박굴에서 유곡리 버들로 넘어가는 재. 수랑굴의 서쪽에 있다.
- 토치제언(坵峙堤堰, 토기방죽) : 주산면 습의면에 있던 방죽 <1911, 朝鮮地誌資料>
- 팽나무재 : 회룡 마을에서 체석굴로 넘어가는 재. 21호 국도가 지난다.
- 호령굴 : 산조개저수지 동남쪽 골짜기이다. 유투나무굴과 제방 사이에 있다.
- 회룡(回龍) : 산조개 마을 북쪽 끝 부분. 21호 국도의 북쪽 부분이다.
- 회룡 : 산조개 아래뜰의 남쪽 끝 부분에 있는 마을.
- 회룡리(回龍里) : 야룡리 동쪽 지역의 옛 이름.
- 회룡리(回龍里, 산조기) : 주산면 야룡리 ‘산조개’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회룡리주막(回龍里酒幕, 산조지주막) : 주산면 야룡리 산조개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흘짜굴 : 산조개저수지 남동쪽 골짜기. 개구리봉의 동남쪽 골짜기이다.
- 회룡(回龍) : 1960년대 야룡리 2구(回龍, 上野) 중 1구. 산조개, 병목안, 호서굴, 새터말, 야관을 통칭하였다.



보금동 옛 연대본부(1996)



수랑골 저수지 연꽃(2007)

## 6. 유곡리(柳谷里)

남포군 습의면(習衣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수곡리(壽谷里)와 유곡리(柳谷里)를 병합하여 유곡리라 하였다.

- 국수봉 : 유곡리, 증산리, 주야리의 경계가 되는 주림산 봉우리이다. 요즘 국사봉이라고도 부르나 노인들은 국수봉으로 부른다. 높이 350.9m이다.
- 굴뜸 : 버들 마을의 북쪽 부분.
- 느진목 : 버들 굴뜸 북쪽, 주야리와 경계가 되는 산 능선. 국수봉의 동쪽이다.
- 당산 : 유곡저수지 제방 가운데에 있는 낮은 산. 높이 34.1m이다. 당집은 없으며 당제 지내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 대동샘 : 버들 아래뜸에 있는 마을 샘.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다.
- 대들보 : 유곡리 남쪽 끝, 서천군과의 경계에 있는 보. 해수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보이다.
- 대들보통 : 대들보 서쪽 큰숙굴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만나는 곳.
- 도토밭끼 : 버들 마을 북쪽 굴뜸의 동쪽 부분. 밭으로 이용된다.
- 두리재 : 유곡저수지 제방 동쪽에 있는 산.
- 둥구재 : 버들 중뜸 서쪽에 있는 낮은 산줄기.
- 뒷굴너머 : 사작굴 방죽 북쪽의 골짜기.
- 등생이 : 옛 수곡초등학교가 있는 언덕.
- 팔무덤재 : 사작굴 마을 남쪽에서 버들 아래뜸으로 이어지는 고개.
- 바위백이 : 유곡저수지 서쪽, 당산 남쪽의 들. 큰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버들 : 유곡리라는 이름의 근원이 되는 중심 마을이다. 사직굴, 아래뜸, 중뜸, 굴뜸으로 구성된다. 옛날에는 480여 가구가 산 큰 마을이라고 한다. 마을의 동서남북에 대궐 같은 기와집 4채가 있었으며, 기와집을 중심으로 많은 집이 들어서 있어 전라도에서 과거보러 올라가던 사람이 이곳을 보고 “여기가 한양이냐”고 하였다는 말이 전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병마절도사를 지낸 조씨가 마을 앞 당산의 당집을 헐고 묘를 쓴 후 마을의 세가 꺾여 쇠락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이 마을은 재무부 장관, 국토통일원 장관, 주일 대사 등을 역임한 金永善의 생가가 있는 마을이고, 보령지역에 많은 토지를 가졌던 趙俊鎬의 고향이기도 하다. 요즘은 청송삼씨가 많이 살고 있다.

- 버들내 : 작은숙굴 앞, 신구리와 경계가 되는 내. 유곡 저수지에서 내려온다.
- 번더실 : 유곡저수지 남쪽 작은 숙굴 앞 들.
- 벌떡 : 작은숙굴 서남쪽 부분.
- 벌떡염전 : 유곡 앞에 있던 염전.
- 북당굴 : 유곡저수지 동쪽 골짜기. 소성굴의 동쪽이다.
- 북바위 : 유곡저수지 동쪽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 북처럼 생겼다. 전장에서 돌아온 장수가 위에 있는 상제(上帝, 생여바위)에게 북을 치며 고하는 모습이라는 전설이 있다. 신구리와의 경계이다.
- 사작굴 : 버들 서쪽, 증산리와의 경계에 있는 마을.
- 사작굴 : 사작굴 마을 앞 골짜기. 숙굴 고라실의 북쪽이다.
- 사작굴방죽 : 사작굴 마을 북쪽의 작은 저수지. 중구재와 사작굴 사이에 있다.
- 산제당굴 : 중구재 너머의 골짜기이다. 사작굴방죽의 북쪽에 있다. 이름만 산제당굴일 뿐 산제당은 없으며, 산제 지내는 것을 보았다는 주민도 없다.
- 삼박굴 : 아래지재골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 상제(上帝)바위 : 소성굴 위 산에 있는 바위. 생여바위의 다른 이름이다.
- 생여바위 : 상제(上帝)바위, 유곡저수지 동쪽 골짜기인 북당굴의 위쪽에 있다.
- 서낭댕이 : 장굴재 위에 있었다.
- 서낭댕이 : 큰지재의 꼭대기에 있다.
- 서낭댕이 : 작은지재의 꼭대기에 있다.
- 소성굴 : 유곡저수지 동쪽 마을.
- 솔재 : 작은숙굴과 버들 사이에 있는 언덕. 왕소나무가 울창했으나 해방 후 벌목하고 밭으로 개간되었다.

- 수곡(壽谷) : 1960년대 유곡리 2구(元柳谷, 壽谷) 중 1구. 숙굴의 한자 표기.
- 수곡초등학교 : 숙굴에 있던 초등학교. 폐교된 후 매각되었다.
- 수랑굴재 : 버들 마을에서 야룡리 수랑굴로 넘어가는 고개. 수박재의 남쪽이다.
- 수박재 : 버들 굴뚝과 야룡리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 중바위와 수랑굴재 사이이다.
- 숙굴 : 유곡리 남쪽 마을. 큰숙굴과 작은숙굴로 구분된다.
- 숙굴고라실 : 작은숙굴과 큰숙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들.
- 아래뜸 : 버들 마을의 남쪽 부분.
- 아래지재골 : 유곡저수지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연봉 : 유곡저수지 동쪽에 있는 173.3m 산봉우리. 산구리와 의 경계이다.
- 원논 : 큰수굴 서남쪽 원뚝 안의 논.
- 원뚝 : 큰수굴 서남쪽에 있는 옛 간척지 제방
- 원유곡(元柳谷) : 버들, 소성굴, 사짓굴을 합하여 부르는 이름.
- 원유곡(元柳谷) ; 1960년대 유곡리 2구(元柳谷, 壽谷) 중 1구.
- 원유곡들 : 버들 마을 앞 들.
- 윗샘골 : 버들 굴뚝 북서쪽 골짜기. 밭으로 개간되었다. 장구배의 북쪽이다.
- 유곡(柳谷) : 버들의 한자 표기.
- 유곡1리 : 1반 상버들, 2반 버들, 3반 하버들.
- 유곡2리 : 1반 사시뚝, 2반 큰숫돌, 3반 작은숫돌.
- 윗판재 : 버들 마을 서쪽에 있는 고개.
- 작은숙굴 : 큰숙굴 동남쪽에 있는 마을. 낮은 언덕의 동쪽에 있다.
- 작은지재 : 유곡저수지 동북쪽에서 야룡리로 통하는 고개. 옛날에는 유곡리, 증산리 주민들의 통행이 많았던 고개이다.
- 장구배 : 버들 산제당골과 윗샘골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
- 장굴재 : 증산리 새터말에서 버들로 통하는 고개이다. 옛날 언덕 위에서 난장이 섰었다고 전한다. 성황당이 있었다.
- 장수바위 : 북바위 옆에 있는 바위.
- 절굴 : 버들 굴뚝 북쪽에서 국수봉으로 이어진 골짜기. 골짜기 위 높은 곳에 청룡암(靑龍岩)이라는 절이 있다.
- 주립산 : 유곡리 북쪽에 있는 산. 유곡리 증산리 주야리 웅천읍 대창리와 경계하는 산이다. 1919년 3·1 운동 때 만세를 불렀던 곳이기도 하다.
- 중뜸 : 버들 마을의 중앙부.

- 중바위 : 버들 굴뚝과 야룡리 수량굴 사이에 있는 바위.
- 중상굴 : 아래지재굴에서 동남쪽으로 난 골짜기.
- 중상굴고개 : 중상굴에서 야룡리 수산굴로 넘어가는 고개.
- 지치(芝峙) : 지재의 한자 표기.
- 진솔밭 : 증산리 셋터말과 사작굴 사이에 있는 언덕. 장굴재의 북쪽이다.
- 질미쪽부리 : 작은숙굴 서남쪽 언덕 끝.
- 청룡끝 : 유곡저수지 북쪽에 내민 산줄기.
- 청룡암 : 절굴 위 높은 곳에 있는 암자.
- 큰숙굴 : 유곡리 남쪽, 옛 수곡초등학교 남쪽 마을이다.
- 큰지재 : 버들 굴뚝에서 야룡리 수량굴, 주야리 담박굴로 넘어가는 고개. 유곡리와 증산리 사람들이 간치역을 가거나 웅천장을 보러 다닐 때 이용하던 고개이다.
- 턱굴 : 유곡저수지 북쪽에 있는 마을. 청룡끝의 동쪽이다.
- 평소 : 버들 굴뚝 윗샘굴의 북쪽 평평한 곳. 돌이 많고 물이 귀한 곳이다.
- 한들 : 작은숙굴 아래 염전으로 가는 길에 있는 들.
- 황새배들 : 작은숙굴 남서쪽에 있는 들. 신구리 죽나무굴 서쪽의 황새배에서 따온 이름이다.
- 회구데기 : 옛 수곡초등학교 서쪽 언덕. 회(灰)가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버들 당산(1996)



수곡초등학교(1996)

## 7. 주야리(珠野里)

본래 남포군 불은면(佛恩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야리(上野里), 하야리(下野里)와 주산리(珠山里) 일부를 병합하여 주야리라 해서 보령군 주산면에 편입하였다.

- 가재굴 : 속주림산 마을 서쪽 골짜기. 함박굴재의 밑이다.
- 갓주림산 : 주야리의 북쪽에 있는 마을. 큰주림산이라고도 하며, 밀양 박 씨가 집성촌을 이루었다. 마을 뒤쪽의 서낭당이 고개를 통하여 증산리 송림 마을과 통한다.  
 이 마을에는 1960년대까지 정월 초에 택일을 해서 산제를 지냈다. 산제는 맨 처음 성황당에서 지내고, 다음으로는 마을 동쪽 산허리 산제당에서 지냈으며, 마지막으로 마을 입구의 돌담에서 지냈다. 큰 소나무 신수가 지금도 남아 있으며 소나무 밑에 돌담을 쌓았다.  
 마을 입구의 돌담은 높이 5~6m 둘레 10여 m의 잡석으로 쌓은 탑으로 보령 지방에서는 특이한 형태였다. 제 지내는 방식은 다른 마을과 비슷하였다.
- 고랑밭 : 갓주림산 마을 서쪽, 서낭당이 동쪽에 있는 밭.
- 구레 : 속주림산 마을 앞의 들. 안구레와 밧구레로 구분된다.
- 국사봉(國師峰) : 국수봉의 다른 이름.
- 국수봉(國帥峰) : 주림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이다. 1919년 만세운동이 있었던 곳이고, 기념비와 안내판이 있다. 야룡리, 주야리, 증산리가 경계한다. 요즘은 국사봉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나이 많은 주민들은 모두 국수봉으로 부른다.  
 1950년대 이곳 국수봉 정상 네모진 큰 바위 밑에서 그릇 조각, 쇠로 만든 말(馬) 및 배(船)의 모형과 금가락지 등이 출토된 사실이 있다고 한다.(장적굴 백만균 63세 증언) 이 산 정상에 1960년대 후반 육군 통신 초소가 설치되어 1980년대 초까지 5~6명의 현역 군인이 주둔한 바 있다.
- 굴바위 : 답박굴 마을 뒤 국수봉으로 오르는 3부 능선쯤에 있는 큰 바위이다. 옛날 국수봉 꼭대기에 있던 것이 굴러 내려와 이곳에 멧었다는 전설이 있다.
- 나무다리 : 두란이와 장적굴 동네 사람들이 재배 동네로 건너가는 다리. 이 다리를 사용하던 주야리(두란이, 장적굴) 주민과 창암리(재배, 도롱굴) 주민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대표 한 사람씩 나와 씨름을 겨뤘던 마을에서 1년간 다리의 설치 및 보수 등을 책임졌었다. 지금은 철근콘크리트로 주야교를 설치하였다.
- 노적봉 : 국수봉 동쪽 봉우리. 느진목의 동쪽이다.
- 느진목 : 주림산 정상과 노적봉 사이에 있는 잘록한 곳. 주야리와 유곡리 사이에 있다.
- 답박굴 : 주야리 남쪽 끝에 있는 마을. 장적굴의 남쪽이다. 마을 안에 3~4기의 고인돌이 있다. 한자로는 저동(楮洞)으로 표기하며, 1960년대에 옥반동(玉般洞)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전주 이 씨가 많이 거주한다.
- 답박굴재 : 답박굴과 장적굴 사이의 언덕.

- 당샘 : 현 마을 회관 북쪽에 있던 샘. 당계 지낼 때 사용하던 샘이다.
- 돌감나무계 : 두란이 마을 북쪽. 산이 끝나는 부분에 돌감나무 두 그루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돌탑 : 갓주립산 마을 입구의 남쪽에 있었다. 높이 5~6m 둘레 10여 m의 돌탑인데 큰 자연석으로 만들었다. 정월 초에 산제 지낼 때 마지막으로 이곳에 지냈으며, 새끼줄로 둘러놓았다고 한다. 보령 지방에서는 미산면 음현리 뜨메기와 갓주립산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탑이다.
- 동산 : 갓주립산 마을 서쪽에 있는 주립산의 한 봉우리. 웅천읍 대창리와 경계한다. 높이 163.6m이다. 삼각점이 있다.
- 두란(杜蘭) : 1960년대 주야리 2구(長洞, 杜蘭) 중 1구. 두란이의 한자 표기.
- 두란이 : 주야리의 남동쪽 들 가에 있는 마을. 위뜸과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풍천 임 씨의 집성촌이다.
- 두란이다리 : 두란이 마을 앞(동쪽)에 있던 크고 넓직한 돌다리. 이 다리를 건너 야룡리 용감아재로 이어져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었다. 경지정리로 없어졌다.
- 두란이앞들 : 두란이 마을에서 창암리 재배에 이르는 들.
- 두란이재 : 장적굴 아래뜸에서 두란이로 넘어가는 고개. 두란이에서는 장적굴재라고 한다. 고개의 서쪽 부분, 두란이 정자나무 북쪽에 고인돌 4기가 있다.
- 떡깁바위 : 답박굴 마을 뒤에 있는 바위. 뚜껑을 덮어놓은 것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 말뚝병보 : 주야리 북쪽에 있는 보.
- 매봉 : 답박굴과 야룡리 수랑굴 사이에 있는 봉우리.
- 목넘어재 : 답박굴 마을에서 야룡리 목넘어로 넘어가는 고개.
- 무넝기 : 용제저수지(龍堤貯水池)의 수문과 그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 물방아보 : 주야리, 창암리, 황률리의 경계 지역에 있는 보.
- 밧구레 : 속주립산 마을 앞 구레들의 서쪽 부분.
- 보지바위 : 장적굴 뒷산 산골다랭이 옆 주립산의 2부 능선에 있다. 지프차만한 크기의 바위인데 위쪽이 3각형으로 떨어져 나가 여자의 성기와 비슷하다 해서 나무꾼들이 붙인 이름이다. 패인 부분이 하늘을 향해 있어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데, 이 바위에 물이 마르면 비가 온다는 말이 전한다.
- 물방아골 : 속주립산 서쪽 골짜기.
- 산제당 : 갓주립산 위뜸 서쪽의 산중턱에 있다. 신수로는 큰 소나무가 있으며, 돌담으로 된 산제당이다. 1950년대까지 정월 보름 안에 택일하여 제를 지냈다. 이곳에서 제를

지낸 후 돌탑에서 제를 지냈다.

- 새뜰 : 답박굴에서 두란이를 거쳐 두란이 앞들로 흐르는 작은 개울.
- 새태굴 : 갓주럼산과 속주럼산 사이에 있는 마을. 진등과 청룡쭈뽀리 사이에 있다.
- 서낭댕이고개 : 갓주럼산 마을 서쪽, 웅천읍 대창리와 경계되는 고개에 있다. 이곳은 송림 주민들이 간치역이나 주산으로 다닐 때 이용하던 큰 길이다. 송림에서는 가침재 또는 가침재라고 부른다. 돌무더기가 있으며 신수로는 벚나무가 있다. 갓주럼산 주민들이 산제 지낼 때 위하던 곳이다.
- 속주럼산 : 새태굴과 장적굴 사이에 있는 마을. ‘작은주럼산’이라고도 한다.
- 아래뜸 : 갓주럼산 마을의 동북쪽 부분.
- 아래뜸 : 두란이 마을의 남서쪽 부분.
- 아래뜸 : 장적굴의 서쪽 부분.
- 안구레 : 속주럼산 마을 앞 구레들의 서쪽 부분.
- 열두마지기보 : 갓주럼산 아래뜸 동쪽에 있는 보. 아래뜸 북쪽 들에 물을 대었다.
- 오막내들 : 새태굴 앞 들.
- 옥반동(玉般洞) : 답박굴의 다른 이름. 어느 노인이 풍수설로 주장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옷샘 : 용샘의 다른 이름.
- 용샘 : 속주럼산 위에 있는 샘. 여름엔 차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며,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 옷 오른 환자가 이 샘에서 목욕을 하면 낫는다고 하여 옷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원두막굴 : 주야리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과수원이 있고, 과수원을 관리하는 가옥이 있다.
- 위뜸 : 갓주럼산 마을의 서남쪽 부분. 주택개량 사업으로 개량 주택이 들어서 있다. 마을 창고 옆에는 고인돌로 보이는 돌 2개가 있다. 창고 옆에는 옛날에 큰 정자 나무가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한다. 또한 현 마을 회관 앞에도 고인돌로 보이는 큰 돌이 있다.
- 위뜸 : 두란이 마을의 북동쪽 부분.
- 위뜸 : 장적굴의 동쪽 부분.
- 육골 : 갓주럼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산골다랭이 논으로 되어있다.
- 이씨종산 : 답박굴에서 국수봉에 이르는 2부 능선에서 4부 능선 사이에 있다. 1970년대에 예비군 사격 훈련장을 설치하여 사용했다.

- 작은산말랭이 : 속주림산 뒤 주림산 능선 중 약간 낮은 부분. 주림산 너머로 나무하러 갈 때 이용하던 고갯길이다.
- 장동(長洞) : 1960년대 주야리 2구(長洞,杜蘭) 중 1구. 장적굴의 한자 표기.
- 장동(長洞) : 장적굴, 속주림산, 새태굴, 갓주림산을 통틀어 부르던 행정동 명.
- 장아보 : 주림산교 바로 밑에 있던 보. 갓주림산 마을 동쪽 들에 물을 대었다.
- 장적굴 : 답박굴과 속주림산 사이에 있는 마을. 위뜸과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풍천임 씨가 많이 거주한다.
- 장적굴재 : 두란이재를 장적굴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 재너머 : 갓주림산 남쪽 청룡쭈뽀리의 들.
- 저동(楮洞) : 답박굴의 한자 표기.
- 주림산 : 주림산 마을. 갓주림산, 큰주림산이라고도 한다.
- 주림산 : 답박굴과 야룡리 수랑굴 사이에 있는 봉우리.
- 주림산(珠簾山) : 주산면 야룡리, 주야리, 유곡리, 증산리 사이에 있는 산. 높이 350.9m이며, 최고봉을 국수봉이라고 부른다. 1919년 만세운동이 있었다. 기념비가 있다.
- 주림산 : 주야리의 북쪽 부분. 갓주림산과 속주림산을 통칭하는 이름.
- 주림산교 : 창암리 주막거리에서 갓주림산 마을로 통하는 다리.
- 주산리(珠山里) : 주림산 마을의 옛 한자 표기.
- 주야교 : 주야리와 제배 마을을 잇는 다리. 이 다리를 통하여 두란이, 답박굴, 장적굴, 속주림산, 수랑굴 주민들이 제배 마을 앞 21호 국도로 왕래한다. 옛날에는 나무다리를 놓았었다.
- 중보 : 창암리 제배 마을 서쪽에 있는 보. 장아보와 물방아보 사이에 있다.
- 진등 : 새태굴과 속주림산 사이에 내민 낮은 산줄기.
- 진등 : 속주림산과 장적굴 사이에 내민 낮은 산줄기.
- 진등재 : 속주림산과 장적굴 사이 진등의 아랫부분. 장적굴과 들녘을 잇는 길이 있다.
- 참샘굴 : 장적굴 아래쪽에 있는 들. 참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채석광 : 장적굴 마을 서쪽, 주림산 3부 능선에 있던 채석광, 차돌(석영)을 캐던 광산이다.
- 청룡쭈뽀리 : 갓주림산과 남쪽의 새태굴 사이에 내민 낮은 산줄기.
- 큰산말랭이 : 답박굴 서쪽, 국수봉 북쪽 좁 낮은 부분. 주림산을 넘어다니던 나무꾼들이 다니던 길이다.
- 큰주림산 : 갓주림산의 다른 이름.

- 하야리(下野里, 두란이) : 두란이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함박굴재 : 장적굴 마을 뒷부분에 있는 작은 고개. 이곳을 통하여 물방아굴로도 가고, 작은산말랭이로도 간다.
- 함박굴재 : 주야리 담박굴, 장적굴에서 증산리로 넘어가는 고개. 주렴산 정상 바로 북쪽이다.
- 함박굴재고랑 : 장적굴 마을 서쪽 골짜기. 물이 많은 골짜기이다.
- 행질 : 두란이 앞 들 건너에 있던 길. 1915년에 측도한 1:50000 지형도에 의하면, 제배에서 이 길을 통하여 비인으로 왕래하였으며 금암리로 통하는 도로는 작은 2등 도로였다. 현재는 농로로 변해 있다.



갓주렴산(1996)



주렴산 3.1운동 기념비(2005)

## 8. 증산리(甌山里)

본래 남포군 습의면(習衣面) 지역으로서 시루메(甌山)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증리(內甌里), 외증리(外甌里)를 병합하여 보령군 주산면에 편입하였다.

- 가침재 : 송림 마을에서 주야리 주렴산 마을로 통하는 고개. 송림 주민들이 간치역, 금암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던 큰 길이다. 꼭대기에 성황당이 있었다.
- 갓굴 : 시루메 동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통봉의 서남쪽이다. 절굴과 북당굴 사이에 있다.
- 개구 : 송림 마을 서쪽, 바다와 통하는 좁은 골짜기. 개귀라고도 한다.
- 개귀 : 송림 마을 서쪽 바다와 통하는 좁은 골짜기인 개구의 다른 이름.
- 곳바위살 : 소이섬 앞에 있던 고기잡이용 살.



- 구리굴 : 송림 마을 동남쪽 골짜기. 절굴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국수봉 : 증산리, 유곡리, 주야리의 경계가 되는 주립산의 봉우리. 예부터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높이 350.9m이다.
- 금석굴 : 돌고개의 새터말 사이에 있는 골짜기.
- 기와집 : 시루메 마을 가운데에 있는 옛 기와집이다. 전주 이 씨의 李德溫 후손이 사는 증가집이다. 부속 건물은 없어지고 원채만 남아있다.
- 콩지 : 소이섬의 남쪽 봉우리.
- 내증(內甌) : 1960년대 증산리 2구(外甌, 內甌) 중 1구. 송림, 성너머, 방죽굴.
- 내증산리(內甌山里) : 송림의 옛 표기.
- 노랑죽굴 : 시루메 마을 동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국수봉의 서남쪽에 있다.
- 능밭이 : 시루메 마을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승지공 묘의 아래이다.
- 담배밭 : 시루메 동쪽 노랑죽굴 남쪽의 평평한 곳. 부엉바위의 북쪽이다.
- 당산 : 시루메 중심 마을과 성너머 마을 사이에 있는 낮은 산줄기. 당집도 없고 노인들도 당제 지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 당산쪽뿌리 : 시루메 중심 마을과 성너머 마을 사이에 있는 당산의 남서쪽 끝.
- 대가리 : 소이섬의 북쪽 봉우리. 높이 51.9m이다.
- 대장번데기 : 송림 마을 샘골 위 산비탈.
- 독금말 : 방죽굴 아래뜸의 남쪽 끝 부분. 옛 사구에 들어선 작은 마을이다.
- 돌고개 : 증산리의 동남쪽 끝에 있는 마을. 낮은 언덕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유곡리와 경계 지역이다. 위뜸과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돛을 보관하던 돛곳이 변한 이름이라고 한다.
- 돌고개재빼기 : 돌고개 마을과 시루메 마을 사이에 있는 성황당이 있는 고개.
- 동구섬 : 방죽굴 남서쪽, 독금말 남쪽에 있는 작은 섬.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되었다가 근래 없어졌다. 소이섬이 소의 형국이며 동구섬은 말뚝의 형국이라고 한다.
- 동산재 : 시루메 위뜸 중심 마을에서 성너머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언덕 위에 옛 토성의 흔적이 있다.
- 동산재 : 시루메 아래뜸 마을에서 성너머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언덕 위에 옛 토성의 흔적이 있다.
- 뽕박산 : 뽕병산의 다른 이름.
- 뽕병산 : 송림 마을 북쪽, 한티재의 서쪽이다. 웅천읍과의 경계가 되는 산. 높이 197.3m이다. 매봉재라고도 한다.

- 둥병 : 소이섬 북쪽 바다. 바다가 깊어 붙여진 이름이다.
- 뒷산 : 방죽굴 마을 서북쪽에 있는 산. 서산뒀을 방죽굴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때깎밭 : 서산뒀 서북쪽 능선의 끝. 웅천읍과의 경계인 바위쪽뿌리와 경계한다.
- 떨어진바위 : 주림산 국수봉 서남쪽에 있는 바위.
- 말뚝섬 : 방죽굴과 소이섬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인 동구섬의 다른 이름.
- 망굴재 : 성너머 마을에서 서북쪽 망굴로 넘어가는 고개.
- 매바위재 : 시루메 절굴 남쪽에 있는 낮은 산.
- 매봉재 : 새터말 북쪽에 있는 봉우리. 통봉의 남쪽이다. 높이 105.8m이다.
- 모이골 : 송림 마을 북쪽 한티재 남쪽 골짜기. 한티재로 오르는 도로가 통한다.
- 바위쪽뿌리 : 증산리 서북쪽 끝. 웅천읍과 경계한다.
- 밥통골 : 송림 마을 동쪽, 큰골 안에 있는 골짜기.
- 밥통굴 : 송림 마을 큰골 안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참새굴 남서쪽에 있다.
- 밧시루메 : 시루메의 중심 마을.
- 방죽굴 : 성너머 북쪽 마을. 옛 방죽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배나무골 : 새터말 북쪽, 새터 소류지 위쪽에 있는 골짜기. 통봉의 남쪽이다.
- 보식골 : 시루메 마을 동쪽 주림산 남쪽 끝이 보습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부엉바위 : 시루메 마을 동북쪽, 노랑죽굴의 남쪽 부엉바위골에 있다.
- 부엉바위고랑 : 시루메 마을 동북쪽, 노랑죽굴의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부엉바위산 : 금석골 북쪽에 내민 작은 산.
- 북당굴 : 시루메 마을 동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갯굴의 북쪽에 있다.
- 비석바위 : 주림산 국수봉 서남쪽에 있는 바위.
- 사청재 : 시루메와 송림 사이에 있는 마을. 위뜸과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마을 앞 골짜기의 위부분에 방죽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방죽은 없어지고 논으로 개간되었다.
- 산막 : 살메기의 다른 이름.
- 산소변덕지 : 한티재 남쪽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큰골의 북쪽이다.
- 산속변데기 : 송림 마을 동쪽 큰골 안에 있는 평평한 곳.
- 산장들 : 송림 마을 앞 들. 송림들의 다른 이름.
- 살메기 : 송림 남쪽에 있는 마을. 절굴에서 옮겨온 백룡사가 있다.
- 상투바위 : 한테재 서쪽, 뒀병산에 있는 바위. 사람들이 찾아와 치병(治病)이나 소원을 기원하던 바위이다.

- 새암굴 : 송림 마을 중뚝과 살메기 마을 사이에 동쪽으로 난 골짜기.
- 새터말 : 증산리의 서쪽 끝. 유곡리와외의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
- 새터저수지 : 새터말에 있는 저수지. 포강이라고도 한다.
- 서낭댕이 : 시루메에서 방죽굴 위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꼭대기에 있었다. 돌이 쌓여 있었고 신수로는 벚나무가 있었다.
- 서살피 : 방죽굴 서북쪽 해안에 있는 산. 높이 147.8m이다.
- 석현(石峴) : 돌고개의 한자 표기.
- 선창 : 서살피의 서쪽 부분. 근래까지 해안이었으나 부사지구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되었다.
- 성너머 : 시루메 중심 마을 서쪽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 위뚝과 아래뚝으로 구분된다.
- 성너머앞들 : 성너머 마을 동쪽에 있는 들.
- 소이섬 : 쇠섬 또는 우도(牛島)라고 한다. 방죽굴과 성너머 마을의 서쪽에 있는 섬이다. 과거에는 간조 때 육지와 연결되는 섬이었으나 1970년대 초 간척 공사로 육지화 되었다.
- 소이섬간척지 : 증산리 서남쪽에 만든 간척지. 소이섬을 중심으로 간척지 제방을 축조하였다. 개인이 막은 간척지이다.
- 송림(松林) : 증산리의 북쪽에 있는 큰 마을. 움말, 중뚝, 아래뚝, 살메기로 구성되어있다.
- 송림들 : 송림 마을 앞 들.
- 송지공묘 : 시루메 마을 남쪽, 갓굴과 북당굴 사이의 산자락에 있다.
- 시루메 : 증산리의 중앙에 있는 중심 마을. 조선 선조 때 우승지를 지낸 李德溫 선생이 낙향하여 살아 전주 이 씨의 집성촌을 이루었다. 일반적으로 시루메라는 이름은 마을에 있는 테피식 산성에서 유래하므로 이 마을에도 테피식 산성이 있을 것 같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마을 안에 ‘성너머’라는 지명과 동산재에 토성의 흔적이 발견된다.
- 시루메들 : 시루메 마을 남쪽의 들.
- 신기(新基) : 새터말의 한자 표기.
- 신석(新石) : 새터말과 돌고개를 합하여 부르는 이름.
- 아래뚝 : 돌고개 마을의 남쪽 부분. 아래뚝의 서쪽 부분을 양지, 동쪽 부분을 읍지라고 부른다.
- 아래뚝 : 방죽굴의 남서쪽 부분.
- 아래뚝 : 성넘어 마을의 남서쪽 부분. 옛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이다.
- 아래뚝 : 송림 마을의 서쪽 부분.

- 아래뜸 : 시루메 마을의 남쪽 부분.
- 아흔다랭이 : 송림 마을 중뜸과 살메기 마을 사이의 새망굴 위부분, 여러 다랭이의 논으로 구성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 안산 : 방죽굴 남쪽에 있는 산. 높이 39.5m이다.
- 안산 : 살메기 마을 앞, 사청재가 지나는 낮은 산줄기.
- 안산 : 시루메 남쪽에 있는 낮은 산. 포장도로의 서쪽이다. 높이 29.9m이다.
- 안산쪽뿌리 : 망굴과 방죽굴 사이에 뾰족하게 내민 산줄기. 안산에서 나온 산줄기이다. 부사지구 간척지에 사용된 황토를 채취하여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다.
- 안시루메 : 송림, 성너머, 방죽굴 지역의 옛 이름.
- 안팎 : 소이섬 간척지의 북쪽 부분. 소이섬과 독금말 사이이다.
- 양지 : 돌고개 아래뜸의 서쪽 부분.
- 염전 : 돌고개 남쪽 현재 양어장 있는 곳. 과거 염전으로 이용되었다.
- 외증(外甌) : 1960년대 증산리 2구(外甌, 內甌) 중 1구. 밧시루메의 한자 표기.
- 외증산리(外甌山里, 시루메) : 시루메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우도(牛島) : 소이섬의 한자 표기.
- 움말 : 송림 마을의 동쪽 부분.
- 원논 : 시루메 마을 서남쪽 끝에 있는 논. 옛 간척지이다. 새로운 간척지 조성 후 붙여진 이름이다.
- 원뚝 : 방죽굴 남쪽에 있는 옛 제방
- 원뚝 : 시루메 마을 서남쪽 끝에 있는 옛 간척지 제방.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다.
- 원배미 : 한배미골 서쪽 끝에 있는 논.
- 원증산(元甌山) : 시루메 마을의 다른 이름. 시루메에서 이름을 따 증산리가 되어 원래의 시루메(甌山)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위뜸 : 돌고개 마을의 북쪽 부분.
- 위뜸 : 방죽굴의 동북쪽 부분.
- 위뜸 : 성너머 마을의 북동쪽 부분.
- 위뜸 : 시루메 마을의 북쪽 부분.
- 윗말 : 움말의 다른 이름. 보통 움말이라고도 부른다.
- 윗살메기 : 살메기골 동쪽 골짜기.
- 육관재 : 새터말에서 주림산 국수봉으로 오르는 고개.
- 윤길묘 : 독립유공자 윤길의 묘. 살메기 마을 북동쪽 산기슭에 있다.

- 이사성묘 : 애국지사 이사성의 묘. 살메기 마을 앞 안산에 있다.
- 읍지 : 돌고개 아래뜰의 동쪽 부분.
- 자우사골 : 송림 마을 북쪽 뒤편산(매봉재)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송림 마을 아래뜰의 북쪽이다.
- 잔등이 : 소이섬의 가운데 부분.
- 재암골 : 방죽골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사청재의 남쪽이다.
- 절굴 : 송림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백룡사가 이곳에서 살메기로 옮겨졌다. 아주 옛날에도 이곳에 절이 있었는데 빈대가 너무 많아 불태워졌다는 전설이 있다.
- 절굴 : 시루메 남쪽에서 통봉 밑으로 난 골짜기. 골짜기 안에 옛 절터가 있다.
- 절터 : 시루메 남쪽에서 통봉 밑으로 난 절굴 안에 있다.
- 절터 : 시루메 마을 동북쪽 노랑죽굴의 남쪽 사면에 있었다. 일제시대까지 탑이 있었으나, 일본인이 군산을 통하여 가져갔다고 전한다.
- 절터 : 절굴 위에 있던 절이다. 백룡사가 있었는데 1970년대에 암자 정리에 따라 송림 살메기로 이전하였다.
- 주림산 : 웅천읍 대창리, 주야리, 야룡리, 유곡리의 경계가 되는 산.
- 중뜸 : 송림 마을의 중심지. 포장도로 옆이다.
- 증산1리 : 1반 하시루메, 2반 상시루메.
- 증산2리 : 1반 성넘어, 2반 방죽골.
- 증산3리 : 1·2·3반 송림.
- 증산4리 : 1반 새터말, 2반 돌고개.
- 증산양식장 : 돌고개 남쪽에 있는 민물고기양어장. 옛날 염전 자리이다.
- 증산제(甌山堤堰, 시루메제은) : 증산리 방죽골에 있던 방죽 <1911, 朝鮮地誌資料>
- 지루네미살 : 소이섬 앞에 있던 고기집이용 살.
- 진뚝병 : 송림 마을 서쪽 골짜기인 개구의 옛 제방 너머를 일컫는 말.
- 진번지살 : 소이섬 앞에 있던 고기집이용 살.
- 참나무고랑 : 방죽골 위뜸 북쪽 골짜기.
- 참새굴 : 송림 마을 동쪽 큰골 안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밥통굴의 동쪽에 있다.
- 큰개살 : 소이섬 앞에 있던 고기집이용 살.
- 큰골 : 송림 마을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골짜기 안에 저수지가 있으며 가침채를 통하여 주야리로 통한다.
- 큰골저수지 : 송림 마을 동북쪽, 큰골 안에 있는 저수지.

- 통봉 : 주립산 국수봉 남쪽에 있는 봉우리. 매봉재의 북쪽이다. 높이 189.8m이다.
- 포강 : 증산소류지의 다른 이름.
- 한배미골 : 돌고개 위뜸 서남쪽 골짜기. 들의 서남쪽 끝은 옛 간척지이다.
- 한티 : 송림 마을 북쪽에 있는 들. 한티의 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한티재 : 송림 마을 북쪽 웅천읍과의 경계가 되는 고개. 포장도로가 지난다. 꼭대기에는 성황당이 있었다. 신수로는 잠목이 있었고, 돌이 많이 쌓여 있었으나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없어졌다.
- 호꼬모랭이 : 성너머 마을 서쪽 끝을 부르는 이름.
- 횃굴 : 새터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



새터말(1996)



시루메(1996)

## 9. 창암리(倉岩里)

본래 남포군 불은면(佛恩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옥상리(玉上里) 창촌(倉村), 연암리(燕岩里), 평촌(坪村) 일부를 병합하여 창촌(倉村)과 연암(燕岩)의 이름을 따서 창암리라 하여 보령군 주산면에 편입하였다.

- 가운데골 : 남전 위뜸 북쪽에 있는 골짜기. 큰골과 물탕골 사이에 있다.
- 각시바위 : 창말 입구에 있는 넓적하고 큰 바위. 들 가운데 있는 사랑 바위와 비교하여 평평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간치역(良峙驛) : 제배 마을에 있는 기차역. 1931년 8월에 현 위치보다 300m 남쪽 황률리에 설치되었는데 1982년 현 위치로 옮겼다. 증기기관차가 운행될 때에는 이곳 간치역에서 물을 공급하여 모든 열차가 정차하였다. 일제시대에는 주산, 미산, 서면, 비인 주민들이 이용하던 유일한 교통수단이 기차였고 그 중심지가 이곳 간치역이었다.

그 후 주산 간이역이 생기고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면서 간치역은 하루에 몇 사람만이 이용하는 역으로 변하였다가, 최근 일반여객은 취급하지 않는다. 이곳을 분기점으로 서해 화력 발전소로 통하는 철도가 개설되어 있다.

- 관너머 : 비선거리와 창말 사이에 있는 마을. 창말에서 보아 창고 너머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을 안에 냉동 공장을 짓다 말고 오랫동안 방치해 오다가 근래에 벽지공장으로 가동하고 있다.
- 근배다리 : 창말에서 도롱굴로 이어지는 길에 있던 다리. 큰 돌 3개로 다리를 놓았는데, 경지 정리로 매몰되었다. 유두다리라고도 하였다.
- 남전(藍田) : 창암리의 동쪽에 있는 큰 마을. 조선 시대에 남전역(藍田驛)이 있었다. 아래뜸·위뜸으로 구분된다.
- 남전역(藍田驛) : 남전 마을에 있었다. 조선 시대 利仁道에 속한 역으로 대마 2필, 기마 3필, 복마 5필, 사내중 45인, 계집중 54인이 속해 있었다. 고종 건양(建陽) 원년(元年 1896) 정월에 폐지되었다.
- 다룡고개 : 창암리와 황룡리, 삼곡리의 경계가 되는 작은 고개이다. 삼곡리 월현 마을의 바로 서쪽에 있다. 삼곡리 월현(月峴) 마을도 다룡고개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하기도 함.
- 다룡굴 : 창암리 동쪽 끝에 있는 골짜기. 다룡고개의 서쪽 골짜기이다. 도로 남쪽 부분 즉, 농경지는 모두 황룡리에 속한다.
- 당사래 : 다룡굴에 있는 들.
- 도룡굴 : 재배 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 안도룡굴과 밧도룡굴로 구분된다. 철도가 마을 앞으로 이설(移設)되었다.
- 도룡굴재 : 재배 마을에서 도룡굴로 넘어가는 고개. 간치역의 이설(移設)로 이용되지 않는다. 도룡굴에서는 재배재로 부른다.
- 동공묘지 : 성재 북서쪽 부분이다.
- 두투메 : 시그내 골짜기의 입구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뒤테메의 남서쪽이다. 뒤테메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뒤테메 : 시그내와 삼곡리 새터말 사이에 있는 높이 77.5m의 낮은 산. 꼭대기에 테피식 산성이 있었는데 근래 축사를 짓느라고 훼손되었다. 현재도 대략의 흔적은 남아있다. 두투메라고 부르는 주민도 있다.
- 뒷굴 : 관너머 북쪽 골짜기.
- 마살메 : 도룡굴 북쪽에 있는 산. 황룡리 숲굴과 경계를 이룬다.

- 마살메모탕이 : 밧도롱굴에서 창말로 가는 길 모퉁이. 서쪽에 고인돌 1기가 있다.
- 말뚝병보 : 비선거리 북쪽에 있는 보.
- 물방아보 : 창암리, 황률리, 주야리의 경계 지역에 있는 보. 중보의 남쪽이다.
- 물탕굴 : 남전 위뜸 북쪽에 있는 골짜기. 가운데굴의 서쪽이다. 예부터 이용하던 샘이 있고, 현재는 간이 상수도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 미륵모탕이 : 비선거리 북쪽 웅천읍과의 경계가 되는 곳. 웅천읍 지역에 미륵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바르메 : 남전 마을과 시그내 사이에 있는 산.
- 바위백이 : 창말 남쪽, 신랑 바위 근처를 부르는 이름.
- 밧도롱굴 : 도롱굴의 북쪽 부분.
- 방죽 : 남전 위뜸에 있는 저수지.
- 배바위 : 남전 남쪽 삼곡리로 통하는 도로 밑에 있는 큰 바위. 두개가 나란히 있으며 모두 고인돌이다. 꺾들로 고여 있어 눈에 물을 넣으면 배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배바위들 : 남전 남쪽에 있는 들. 배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백축안 : 남전 위뜸의 동쪽, 화평리와의 경계에 있는 산.
- 병풍바위 : 물탕굴 위에 있는 바위.
- 불무재 : 남전에서 창말로 넘어가는 진등재의 다른 이름.
- 비선거리 : 21호 국도에서 창암리로 들어오는 길이 갈라지는 삼거리. 삼거리에 관찰사 송정명비가 강희 53년(1714년)에 세워져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안에 서너 개의 큰 돌이 있는데 모두 고인돌로 보인다.
- 샷갓재 : 시그내에서 화평리 큰샷갓재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꼭대기에는 성황당이 있다.
- 상촌(上村) : 남전 ‘위뜸’ <1911, 朝鮮地誌資料>
- 서낭댕이 : 시그내에서 화평리 큰샷갓재 마을로 통하는 샷갓재에 있다. 돌무더기가 남아 있고 신수인 팽나무도 남아 있다.
- 성재 : 시그내와 화평리 성드라를 연결하는 고개. 뒷테메의 바로 북쪽이다. 꼭대기에 고인돌 2기가 있다.
- 솟바위 : 신랑 바위의 다른 이름.
- 솟굴재 : 도롱굴에서 솟굴로 넘어가는 고개. 안밧도롱굴 모두 솟굴재이다.
- 시그내 : 창암리 동쪽 끝에 있는 큰 골짜기. 주민의 거주는 없다. 골짜기 위에 화평리로 통하는 샷갓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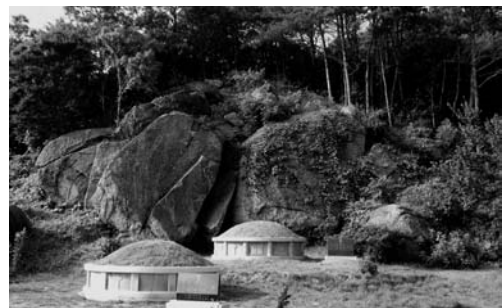


- 시그내재 : 시그내와 삼곡리 새터말을 잇는 고개. 뒷테메의 바로 남쪽이다.
- 신랑바위 : 창말 남쪽 들 가운데에 있는 바위. 각시바위와 비교하여 뽕쪽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거대한 고인돌이다. 경지 정리 때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 아래뜸 : 남전 마을의 남쪽 부분.
- 아래뜸 : 창말의 서남쪽 부분.
- 안도롱굴 : 도롱굴의 남쪽 부분. 안도롱굴 안에는 골인들로 보이는 4개의 큰 돌이 있다.
- 암바위 : 각시 바위의 다른 이름.
- 여수바위 : 남전 남쪽에 있는 배바위의 다른 이름.
- 역리(驛里) : 남전의 옛 이름.
- 역말 : 창암리 동쪽 남전을 부르던 옛 이름. 남전에 조선 시대 후기까지 역(藍田驛)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요즈음은 잘 부르지 않는다.
- 연암(燕岩) : 1960년대 창암 2구 (燕岩, 倉田) 중 1구.
- 연암(燕岩) : 제배의 한자 표기.
- 연암리(鵞岩里, 제비바위) : 제배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열두마지기보 : 밧도롱굴과 주야리 갯주럼산 아래뜸 사이에 있는 보.
- 옥적리(玉積里) : 남전(아래뜸)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외뜰집 : 남전 위뜸의 동쪽에 있는 집. 집 3채가 들 건너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방죽의 동쪽이다.
- 우마장 : 비선거리와 관너머 사이에 있는 낮은 산줄기. 옛날 소를 많이 매던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운봉산 : 창암리 북쪽, 웅천읍 대창리, 성동리와 경계가 되는 산. 높이 337.3m이다. 꼭대기에 삼각점이 있다.
- 월현(月峴) : 다룽고개의 한자 표기.
- 위뜸 : 남전 마을의 북쪽 부분.
- 위뜸 : 창말의 북동쪽 부분.
- 장수바위 : 신랑 바위의 다른 이름.
- 장아보 : 주럼산교 남쪽에 있는 보.
- 제배 : 창암리의 남쪽 끝 마을. 간치역이 들어서 있다. ‘제배’라고 불리는 바위에서 생겨난 지명이다. 주민들은 바위에 제비가 살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제비는 바위에 살지 않으므로, 성벽처럼 생긴 바위의 모양 때문에 ‘재배’라고 불리다가 변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성(城)의 고어는 ‘갯’이다.

- 제배재 : 도롱굴재를 도롱굴에서 부르는 이름.
- 저드래모텡이 : 밧도롱굴과 안도롱굴 사이의 모롱이.
- 절터굴 : 창말 위뜸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제비바위 : 제배 마을 서북쪽에 있는 큰 바위.
- 주렴산교 : 주막 거리에서 주야리 주렴산으로 통하는 다리.
- 주막거리 : 제배 마을 서쪽 21호 국도변에 있는 작은 마을. 도롱굴로 통하는 도로가 갈라지는 삼거리이다. 옛날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중보 : 제배 마을 서쪽에 있는 보. 물방아보와 장아보 사이에 있다.
- 지정이재 : 제배와 황룡리의 경계 지역에서 황룡리 숲굴로 넘어가는 고개.
- 진등날맹이 : 남전 마을과 창말 사이에 있는 긴 능선.
- 진등재 : 남전 아래뜸에서 창말 위뜸으로 넘어가는 고개.
- 창말 : 창암리의 중심 마을. 관너머와 남전 사이에 있고, 위뜸 · 아래뜸으로 구분됨.
- 창암1리 : 1반 도롱골, 2반 제배.
- 창암2리 : 1반 관너머, 2반 창말.
- 창암3리 : 1반 위뜸, 2반 아래뜸.
- 창전(倉田) : 1960년대 창암 2구 (燕岩, 倉田) 중 1구.
- 창집터 : 창말 아래뜸과 관너머 사이에 있는 낮은 언덕 위에 있었다. 현재도 기왓장이 출토된다.
- 창촌(倉村) : 창말의 한자 표기.
- 채석장 : 비선거리 북쪽 웅천읍과의 경계에 있다. 철도 자갈을 채취하였다.
- 청룡 : 창말의 남동쪽에 내민 산. 마을에서 보아 좌청룡에 해당되어 붙여진 이름.
- 큰골 : 남전 마을 북동쪽 끝에 있는 골짜기.
- 통봉 : 남전 위뜸 방죽 동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
- 퇴끼봉 : 남전과 화평리 사이에 있는 봉우리. 백축안의 북쪽이다.



비선거리 송정명비(1996)



제비바위(2007)

## 10. 화평리(花坪里)

본래 남포군 불은면(佛恩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화산리(花山里)와 평촌(坪村), 천곡리(泉谷里)와 정곡리(井谷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화산(花山)과 평촌(坪村)의 이름을 따서 화평리라 해서 보령군 주산면에 편입되었다.

- 가장골 : 큰삿갓재와 작은삿갓재(안태) 사이에 있는 골짜기. 밭으로 개간되었다.
- 갓날 : 왕봉의 동남쪽 능선.
- 개똥구녕 : 작은삿갓재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궁개또랑 : 오방내와 삿갓재에서 내려오는 냇가 합쳐지는 곳.
- 그석밭 : 화산내 마을 북쪽에 있는 산 능선. 뜰터의 남쪽이다.
- 글자새긴바위 : 정판보 위에 있던 바위.
- 넙적 바위 : 정판보 위에 있던 바위.
- 능그리샘 : 능그리샘굴에 있는 샘. 해발 150m 근처에 있다.
- 능글리샘굴 : 운봉산의 남서쪽 골짜기.
- 당산 : 화산 마을 북동쪽에 내민 작은 산줄기. 마을 주민들은 제 지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므로 아주 오래 전에 없어진 듯하다.
- 도둑바위 : 큰삿갓재 마을 입구에 있는 바위.
- 두투메 : 뒤테메의 다른 이름
- 뒷굴재 : 화산 마을에서 방죽굴로 넘어가는 고개.
- 뒷테메 : 화평리 남쪽 끝 삼곡리와 경계되는 산. 정상에는 옛 토성이 있는데 훼손되었다.
- 들미돌 : 큰삿갓재 정자나무 아래에 200근 정도 되는 둥근 들돌이 있었는데, 마을 장정들이 힘자랑으로 들었다 놓고 그 위에 앉는 풍습이 있었으나 없어졌다.
- 뜰터 : 왕봉 남쪽 7부 능선에 있다. 큰 인물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일본인들이 뜰을 뜬 곳이라고 전한다.
- 마살미모탱이 : 큰삿갓재에서 작은삿갓재로 돌아가는 모퉁이.
- 마살미산 : 작은삿갓재와 큰삿갓재 사이에 있는 산.
- 밤나무너머 : 화산 마을 남동쪽 제방에 밤나무를 심었었고, 그 너머를 말한다.
- 방안고랑 : 왕봉 동쪽 골짜기.
- 방죽 : 화산내 마을 북쪽에 있는 작은 방죽.

- 방죽굴 : 화산 마을 서북쪽, 배꼽뿔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배꼽뿌리 : 배꼽뿔산 남쪽에 있는 산줄기의 끝.
- 배꼽뿔산 : 화산 마을 서쪽에 있는 산봉우리.
- 배챙이 : 화산 마을 서쪽 내 건너에 있는 산사면을 통칭하는 말.
- 배챙이내 : 화산 마을 서쪽 부분의 내.
- 배챙이들 : 화산 마을 서쪽에 있는 들.
- 백추강말림 : 작은삿갓재(안태) 서남쪽 산. 추강 백낙관 선생의 묘가 있었고, 백낙관의 아버지인 백홍수의 신도비가 있다.
- 보들 : 큰삿갓재 마을 동쪽의 들.
- 삿갓재 : 화평리 남쪽 마을. 큰삿갓재와 작은삿갓재(안태)로 구분된다. 큰삿갓재의 북쪽 산모퉁이 정자나무 밑에는 어느 묘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보이는 문인석 2개와 목이 부러진 동자석 2개를 놓고 단옷날 제를 지낸다. 마을 회관 옆에는 수백 년 된 팽나무가 있어 그네를 땀다. 마을에 산제당은 없다.
- 삿갓재 : 큰삿갓재 마을에서 창암리 시그내로 통하는 고개. 고개 꼭대기에는 성황당이 있다. 신수로 팽나무가 있으며, 아직도 돌무더기가 남아 있다.
- 산밧이 : 큰삿갓재의 남쪽 부분.
- 상강재 : 화산 마을에서 당산을 넘어 정판들로 통하는 고개.
- 상투바위 : 운봉산 봉우리 동쪽에 있는 바위.
- 새배챙이 : 화산 마을의 서북쪽 부분. 왕봉의 서쪽이다.
- 새배챙이들 : 배챙이들의 북쪽 부분.
- 새토백이 : 화산 마을의 동북쪽 부분.
- 성굴보담 : 새배챙이에 있는 보. 웅천 성동리에 물을 댄다.
- 성드라 : 화평리 남쪽, 뒤테메 북동쪽 골짜기. 골짜기 안에는 고인돌 1개가 있다.
- 성재 : 성드라에서 창암리 시그내로 넘어가는 고개. 꼭대기에는 고인돌로 보이는 돌 2개가 있다.
- 아래들 : 613호 지방도 서쪽 들을 부르는 이름이다. 613호 지방도 동쪽을 위들, 서쪽을 아래들이라고 한다. 삼곡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안산 : 큰삿갓재 남쪽에 있는 산. 산밧이의 바로 남쪽이다.
- 안태 : 작은삿갓재의 다른 이름.
- 안태보 : 화산 마을 남쪽에 있던 보.

- 앞다리 : 화산 마을 남쪽에 있던 다리. 삿갓재로 통하였다. 쇠다리 또는 징검다리로 이루어졌었다.
- 앞들 : 화산 마을 앞 들.
- 약방다리 : 화산 마을 남동쪽에 있던 다리. 동오리에 있던 약방에 다니던 다리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약현(蕪峴) : 삿갓재의 한자 표기.
- 약현들 : 삿갓재 마을 동쪽의 들. 화평들이라고도 한다.
- 약현들 : 삿갓재 마을 앞에 있는 들.
- 오방내 : 화산 마을 남쪽에 있는 내.
- 오방내다리 : 앞다리의 다른 이름.
- 오방내들 : 화산 마을 앞 들. 앞 들의 서쪽 부분이다.
- 왕봉 : 화산 마을 뒤에 있는 산봉우리. 이 산에 묘를 쓰면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와 일제시대 혈을 끊기 위해 산줄기 두 곳을 찾아 뜸을 떴다고 하는 뜸터가 전해진다. 남쪽 사면에 이괄(李适)네 묘라는 묘가 전해져 온다.
- 우물산 : 화산 마을 북쪽에 내민 산줄기. 화산 마을 가운데로 내민 산줄기이다.
- 운봉산 : 삿갓재 마을 서쪽 응천읍 성동리, 대창리, 주산면 창암리와의 경계가 되는 산.
- 운봉암 : 운봉산 정상 남동쪽에 있는 절.
- 원뚝 : 화산내 마을 앞 제방 뚝.
- 이괄네묘 : 화산 마을 북쪽 새토백이 안에 있다. 이곳에는 장군석 등 석물이 모두 넘어져 있는데, 세워 놓으면 동오리 여자들이 바람나고, 눕어 놓으면 화산 마을 남자들이 바람난다는 전설이 있다. 또한 이 묘는 호랑이 심장혈에 쓴 묘라 후손이 찾아오면 죽는다고 한다. 그래서 후손들은 남쪽의 월현 고개나 함정 고개에서 이곳에 절을 하고 돌아간다는 전설이 있다. 이 묘는 조선 중기의 무관으로 중종반정 과정에서 잘못되어 남포현 지역에 유배된 이줄(李茁)과 그 후손들의 묘로 확인되었다. 이줄은 이괄과 같은 고성이씨이다.
- 이미기바위 : 증판보 위에 있던 바위.
- 작은삿갓재 : 삿갓재 마을의 북쪽 부분. 안태라고도 부른다.
- 절터굴 : 화산 마을 서쪽 내 건너에 있는 골짜기. 옛날 절이 있었다고 전한다.
- 증판들 : 화산 마을 동쪽 들. 증판보에서 물을 낸다.
- 증판보 : 화산 마을 동북쪽에 있는, 화산 앞들에 물을 대는 보. 1987년에 만들.

- 큰삿갓재 : 화평리 남쪽 삿갓재 동북쪽에 있는 마을.
- 퇴끼바위 : 운봉산 동쪽에 있는 바위. 상투바위의 동쪽이다.
- 퇴끼봉 : 작은삿갓재(안태) 동쪽에 있는 산봉우리. 창암리와의 경계이다.
- 평리(坪里) : 삿갓재 마을의 옛 한자식 이름.
- 평촌(坪村, 삭갓지) : 화평리 삿갓재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화산(花山) : 화평리 북쪽에 있는 마을. 화산내가 마을을 U자 형으로 둘러싸고 뒤에는 높은 왕봉산이 있어 천혜의 요새 같은 마을이다. 마을은 왕봉 남쪽 퇴적지 위에 있다. 명당이라는 뜻에서 화산이라고 했다고 하며, 여지도서에 91호 32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명당을 찾아 이곳에 살았던 것 같다. 풍수에 의하면 이곳의 꽃은 꺾어다 꽃은 꽃이라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전한다. 금녕김씨와 남양홍씨가 많이 살았었다고 전한다.
- 화산내 : 화산 마을 앞을 흐르는 내. 매바위에서부터 왕봉을 중심으로 U자로 굽어 응천읍 성동리로 들어간다.
- 화산내 : 화산 마을의 다른 이름. 옛날에 부르던 이름이다.
- 화산내다리 : 동오리에서 화산내로 들어오는 다리.
- 화산리(花山里) : 화산내 마을의 옛 한자 표기.
- 화산보 : 화산 마을 동쪽에 있던 보. 현재는 폐지되었다.
- 화산천(花山川) : 화평리 화산내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화산평(花山坪) : 주산면 동오리, 삼곡리, 화평리에 걸친 들. <1911, 朝鮮地誌資料>
- 화평1리 : 1반 삿갓재, 2반 안터.
- 화평2리 : 1반 화산.
- 화평들 : 삿갓재 마을 동쪽의 들. 약현들, 보들이라고도 한다.



작은삿갓재(1996)



큰삿갓재(1996)

## 11. 황률리(篁栗里)

남포군 불은면(佛恩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황성리(篁城里), 울동(栗洞), 월현리(月峴里), 일부와 습의면(習衣面)의 회룡리(回龍里) 일부를 병합하여 황성(篁城)과 울동(栗洞)의 이름을 따서 황률리라 하여 보령군 주산면에 편입하였다.

- 가나무재 : 황생이 위뜰에서 숲굴고랑으로 넘어가는 고개.
- 공판재 : 쇠꼬지 마을 정굴 고랑 위쪽 산능선. 산이 평평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금곡(金谷) : 쇠꼬지의 한자 표기.
- 날근터고개 : 옹동말에서 금암리 구렁목으로 넘어가는 고개.
- 내촌(內村) : 황생이 안마실의 한자 표기.
- 노인봉 : 금암리 구렁목과 옹동말 사이에 있는 산 봉우리.
- 다룽고개 : 삼곡리 월현 마을과 황률리 다룽골 사이의 고개.
- 다룽골 : 황생이 마을 북쪽 언덕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 당사래 : 황생이 마을 북쪽 언덕 너머 다룽골에 있는 논 이름.
- 대금당 : 대금댕이의 다른 이름.
- 대금댕이 : 쇠꼬지 마을 입구의 북쪽에 있는 산. 풍천임씨네 묘가 들어서 있다. 任殷模의 호자문과 任憲順 妻 평산신씨의 열녀문이 있다.
- 도랑굴 : 쇠꼬지 마을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주민의 거주는 없고 밭으로 개간되었다.
- 두집매 : 밤나무굴의 613호 지방도 동쪽 부분. 집이 2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마골치 : 옹동말에서 쇠꼬지 정굴 고랑으로 넘어가는 재.
- 만아바위 : 숲굴안에 있는 큰 바위. 숲굴재 북쪽에 있다.
- 밤나무굴 : 황률리 남쪽에 있는 마을. 613호 지방도가 지난다.
- 사모배들 : 밤나무굴 서북쪽에 있는 들. 테피 남쪽 끝에 사모같은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96년에 경지정리되었다.
- 삼배들 : 사모배들의 다른 이름.
- 삼배모탱이 : 사모바위가 있는 모룽이. 테피의 남쪽이다.
- 상촌(上村) : 황생이 위말의 한자 표기.
- 서뜸 : 황생이의 서쪽, 가나무재의 동북쪽 부분이다.
- 서촌(西村) : 황생이 서뜸의 한자 표기.

- 소뜸길 : 솥굴고랑에서 장구석 쪽으로 난 골짜기에 난 길.
- 소리개골 : 주막거리에서 소리개재로 통하는 골짜기.
- 소리개재 : 주막거리에서 삼곡리 구렁목으로 통하는 고개. 고개의 바로 너머 삼곡리 지역에 성황당이 있다.
- 쇠꼬지 : 황률리 동쪽 끝에 있는 마을. 삼곡리와 경계한다. 마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서로 이짜뜸 저짜뜸으로 부른다.
- 쇠꼬지고랑 : 쇠꼬지 마을 앞에 있는 들. 1996년에 경지정리되었다.
- 쇠꼬지재 : 쇠꼬지에서 삼곡리 위골말과 구렁목으로 넘어가는 고개.
- 숙굴 : 솥굴의 다른 이름.
- 솥굴고랑 : 황생이 서쪽 언덕 너머에 있는 큰 골짜기. 현재 2가구가 거주한다.
- 솥굴재 : 지장내와 간치역 사이의 홍어뿌리에서 솥굴로 넘어가는 고개.
- 솥굴재 : 창암리 안도룡굴에서 솥굴로 넘어가는 고개.
- 시두박굴 : 쇠꼬지 마을 동쪽에 난 작은 골짜기.
- 아래뜸 : 황생이의 남쪽에 있는 마을. 들의 양쪽을 통칭한다.
- 안마실 : 황생이의 북쪽 부분.
- 안산 : 쇠꼬지 마을 이짜뜸과 저짜뜸 사이에 있는 산.
- 야관이 : 지장내를 요즈음 부르는 이름. 원래 야관은 야룡리 지역이나 황생이에서 불 때 야관이 쪽 재너머라 붙여진 이름이다.
- 야관이재 : 황생이 위뜸에서 지장내 쪽으로 통하는 고개.
- 여수바위 : 솥굴 중앙에 있는 바위.
- 역말산 : 솥굴 입구의 동쪽에 있는 산. 역말 앞에 있는 산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역전 : 황생이 북서쪽에 간치역이 있었는데 1982년 현 위치로 이전하였고 역 청사 자리는 저탄장이 되었다. 옛 역 청사 앞에 있던 마을을 역전이라고 부른다.
- 열녀문 : 대금댕이 서쪽 도로변에 있는 풍천 任憲順의 妻 平山申氏의 열녀문.
- 열녀문 : 황생이 마을 아래뜸. 도로 북쪽에 있다. 풍천 任世憲의 妻 漢陽趙氏의 열녀문이다.
- 옹동(翁洞) : 옹동말의 한자 표기.
- 옹동말 : 황률리 남쪽, 밤나무굴 동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 옹동말고랑 : 옹동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들. 1996년에 경지정리되었다.
- 월현 : 황률리와 삼곡리 월현 사이에 있는 고개.
- 월현고인돌 : 월현 고개 동남쪽, 삼곡리와 황률리 경계에 5기의 고인돌이 있다.



- 위뜸 : 황생이의 서쪽, 가나무재 남쪽 부분이다.
- 울동(栗洞) : 1960년대 황룡리 2구(篁城, 栗洞) 중 1구. 밤나무굴의 한자 표기.
- 음동말 : 옹동말의 다른 이름.
- 이쪽뜸 : 쇠꼬지 마을에서 서로 자기쪽 마을을 부르는 이름.
- 장구석 : 황생이 서뜰에서 창암리 쪽으로 넘어가는 언덕. 장구석은 북쪽이다.
- 저쪽뜸 : 쇠꼬지 마을에서 서로 상대쪽 마을을 부르는 이름.
- 정굴고랑 : 쇠꼬지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 공판재의 밑이다.
- 정문거리 : 주막거리 주변을 일컫는 다른 이름. 풍천 任世憲의 妻 한양조씨, 任殷模의 효자각, 任憲順의 妻 평산신씨의 열녀각 등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정문도라 : 주막거리와 월현 사이에 있는 들.
- 정자나무 : 황생이 안마실과 서뜰 사이의 마을 회관 뒤에 있다. 아주 오래된 정자 나무이다.
- 주막거리 : 613호 지방도에서 황생이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정미소가 있으며 과거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지장들 : 지장내 앞 들.
- 지장예 : 황생이 남쪽, 철로 북쪽에 있는 마을. 과거에는 지장예라고 불렀고, 요즈음은 야관이라고 부른다. 옛날 땅이 메말라 지장을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지정이재 : 역전 마을에서 숲굴로 넘어가는 고개.
- 청룡산 : 옹동말과 쇠꼬지 사이에 있는 산.
- 충충골 : 옹동말 남쪽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 탄동(炭洞) : 숲굴의 한자 표기.
- 테피 : 황생이 남쪽에 있는 높이 98.7m의 산이다. 산 정상 부분에는 테피식 토성이 남아 있다.
- 하촌(下村) : 황생이 아래뜸의 한자 표기.
- 함박굴 : 황생이 북쪽, 테피 동쪽에 있는 골짜기.
- 함정고개 : 금암리 금맹이와 경계되는 고개. 613호 지방도가 통한다.
- 흥어뿌리 : 지장내에서 간치역으로 가는 산모퉁이.
- 황생이 : 황룡리의 동북쪽에 있는 중심 마을이다. 아래뜸, 위뜸, 서뜰, 안마실로 구성된다. 풍천임씨의 집성촌이다.
- 황성(篁城) : 1960년대 황룡리 2구(篁城, 栗洞) 중 1구. 황생이의 한자 표기.
- 황성리(篁城里) ; 황생이의 옛 이름.

- 황율1리 : 1반 안마실, 2반 위뜸, 3반 황성, 4반 역진.
- 황율2리 : 1반 밤나무굴, 2반 옹동말, 3반 쇠꼬지.
- 효자문 : 대금댕이 서쪽 도로변에 있는 풍천 任殷模의 효자문.



밤나무굴(1996)



대금댕이 정문(1996)

### 도움말 주신 분(1996년 현재)

박종순(67)	주산면	금암리	신지굴	317	윤주철(62)	주산면	증산리	송림	335
임옥제(68)	주산면	금암리	청석다리	550	이태호(82)	주산면	증산리	시루메	535
임익순(58)	주산면	금암리	청석다리	419	이산호(66)	주산면	증산리	시루메	521
조돈희(60)	주산면	금암리	통점		이영규(57)	주산면	증산리	성넘어	478
이정희(43)	주산면	동오리	229	이승열(83)	주산면	증산리	방죽굴	650	
이상순(52)	주산면	동오리	안굴	59	이종석(67)	주산면	증산리	새터말	46
정태준(65)	주산면	삼곡리	동실	265	이철규(66)	주산면	증산리	새터말	65-1
장영순(79)	주산면	삼곡리	큰샘실	77	윤주섭(67)	주산면	증산리	살메기	
이종구(66)	주산면	신구리	죽낭굴	516	박종구(54)	주산면	창암리	333	
이종천(60)	주산면	신구리	거그메	181	신영채(74)	주산면	창암리	남전	164
이사범(68)	주산면	야룡리	558	이종연(53)	주산면	창암리	남전	185	
조길희(55)	주산면	야룡리	427-1	김진옥(54)	주산면	화평리	화산	299	
박창일(55)	주산면	야룡리	산조개	73	김필제(60)	주산면	화평리	큰삿갓재	480
이옥레(55)	주산면	야룡리	새태말	308	백명호(45)	주산면	화평리	작은삿갓재	443-3
이재의(63)	주산면	야룡리	수랑굴	620-2	임궁재(74)	주산면	황률리	밤나무굴	산 64
이세문(59)	주산면	유곡리	109	김용팔(68)	주산면	황률리	황생이	164	
이공규(75)	주산면	유곡리	119	임현갑(55)	주산면	황률리	쇠꼬지	333	
이재영(79)	주산면	유곡리	353	임성재(87)	주산면	황률리	옹동말	61-1	
임희재(93)	주산면	주야리	장적굴	374	임수혁(45)	주산면	황률리	지장예	391
박덕규(57)	주산면	주야리	주림산	592-3	김정희(71)	주산면	황률리	숯굴	288